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 짐승들

ver 201801

제작

B.A Entertainment

원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作 소네 케이스케

각본/감독

김용훈

## 1. 주차장-사우나. N

애잔한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화면이 열린다.

덜컹- 벤츠 트렁크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골프용 명품 보스턴백.  
누군가의 손이 불쑥- 들어와 보스턴백을 잡고는 어딘가로 향한다.  
마치 보스턴백에 카메라가 달린 듯, 카메라는 보스턴백만을 비추며 따라간다.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는 보스턴백.  
덜컹- 47번 락커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누군가의 손이 보스턴백을 힘겹게 밀어 넣는다.  
락커 안에 구겨지듯 들어가 있는 보스턴백.  
그 화면 위로 붉은 글씨의 타이틀이 새겨진다.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 2. 평택호 부근. D

화면이 열리면, 땅에 코를 가까이 대며 쿵쿵 거리는 개가 보여 진다.  
순간,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갑자기 수풀 사이로 달려가는 개.  
개를 끌던 노인이 '어어' 하며 개를 뒤 쫓아 간다.

개가 수풀 사이에서 발견한 건, 붉은색 여행 캐리어...  
노인이 뭔가 싶어 캐리어를 열어보는데...  
덜컹- 캐리어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사람 인체 일부가 캐리어 밖으로 툭- 흘러나온다.  
!!!  
헉-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는 노인.  
화면에는 허벅다리 바깥부분에 새겨진 잉어 문신이 길게 보여 진다.  
그 위로, '쿵쿵' 개 짖는 소리...

## 3. 호텔, 사우나 안. D

사우나 출입문에 '청소 중'이란 팻말이 걸려있다.  
사우나 로비 벽에 걸린 전자시계가 '05:01'를 표시한다.  
화면 넓게 빠지면, 사우나 점원 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홀로 사우나 탈의실 바닥을 대걸레질 하고 있다.

## 김중만

차례차례 열고 닫히는 락커 문...

중만은 마스터키로 락커 문을 열고 닫으며 점검한다.

락커 안은 전부 비어있다.

다음은 47번 락커 차례. 탈각- 문을 여는데, 그 안에 꼭 끼어있는 명품 보스턴 백.

중만은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끄응- 소리를 내며, 보스턴백을 힘겹게 꺼내는 중만.

중만                    후우... (보스턴백을 들어보더니)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그 자리에 앉아 보스턴백 지퍼를 열어본다.

가방 안에 신사임당이 새겨진 5만원권 다발이 가득 들어있다!

중만                    !!!

중만은 놀란 마음에 숨을 스읍- 들이마시고는 보스턴백 지퍼를 허둥지둥 잠근다.

그 순간, 누군가 들어왔음을 알리는 짤랑- 종소리가 들린다.

중만이 당황해하며 문 쪽을 돌아보면, 사우나 점원복을 입은 20대 알바생이 흥얼거리며 사우나 안으로 들어온다. 알바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보스턴백을 안고 있는 중만을 이상하듯 쳐다본다.

중만                    (제 발 저린 듯) 아, 이 가방 손님이 놓고 갔어. 새벽에 온 손님인데, 밖에 나가더니만 안 돌아오네...

알바생                그래요? 비싼 가방 같은데...

중만                    (가방을 보고는) 그래? 이게? 뭐 찾으러 오겠지. 그럼. (일어나며)  
이거 분실물 보관실에 갖다 둘게. 혹시 누가 가방 찾으러 오면 나한테 연락 좀 줘. 내가 얼굴을 확인하고 줘야 할 것 같아서.

알바생                (건성건성) 알겠어요.

## 4. 호텔 사우나, 분실물 보관실. D

중만이 텅 빈 직원 사무실로 들어와 사무실 구석에 있는 문을 열면, 중만의 시점으로 분실물 보관실이 보인다. 둔탁해 보이는 철제 선반이 한쪽 벽면을 길게 차지하고 있고, 그 선반 위에는 각양각색의 분실물들이 놓여있다.

중만은 잘 안 보이는 선반 구석 하단에 보스턴백을 밀어 넣듯 집어넣는다.

마치 잘 숨기려는 것 같아 보인다.

## 5. 중만의 집 앞. D

오래된 단층짜리 주택. 철컹- 철제대문 열리는 소리.  
주택 안으로 중만이 자전거를 끌고 들어온다.

## 6. 중만의 집, 현관 앞 거실. D

중만이 현관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서면, 거실 복도에 잔뜩 고인 물을 걸레로 닦고 있는 중만의 아내 ‘영선’이 보인다. 그 뒤로는 낡은 1인용 의자에 앉은 중만의 엄마 ‘순자’가 찹쌀떡을 오물오물 씹으며 TV를 보고 있다.

중만	(영선에게) 뭐야?
영선	뭐겠어?
중만	설마 오줌이야?
영선	...
중만	(한숨) 일하러 나갈 시간 아냐? 내가 할게.
영선	(걸레로 바닥을 훑치며) 됐어. 이제 다 했어.

중만은 미안한 얼굴로 영선을 지나 순자에게 다가가서는,

중만	다녀왔어요.
순자	(TV에만 집중한 채) 어, 왔니?

순자의 입 주변에는 찹쌀떡 가루가 잔뜩 묻어있다.

중만	기저귀 차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순자	내가 세 살배기 애야? 기저귀 어케 차?
중만	청소하는 사람도 생각 하셔야죠.
순자	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재는 가게 일은 돕지 않고 맨 날 집구석에서 뒹굴뒹굴 놀기만 해.
중만	가게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가게 타령이에요.
순자	니가 이렇게 허술하니까, 단골손님이 다 떠나간 거야.

중만은 더 이상 말하면 뭐하나 싶은지 안방으로 들어간다.

순자가 보고 있는 TV에서는 ‘평택호에서 발견된 토막시체’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 7. 중만의 집, 안방. D

방 안에 들어온 중만이 옷을 벗고 휴대폰을 보는데, 특별히 연락 온 건 없다.  
이 때, 방 안으로 영선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는,

영선           여보.  
중만           응?  
영선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고 한 바탕 난리  
                  치셨어.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러시네. (한숨)  
                  계속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니깐 알아두라고...  
중만           그래, 알았어. 고생했어.  
영선           그럼 다녀올게.

영선이 방을 나가려하는데,

중만           (문득) 아, 혹시 사우나에서 나한테 전화 온 거 없었어?  
영선           안 왔는데... 무슨 일 있어?  
중만           응? 아니야... 다녀와.

영선이 방을 나가면,

중만           (혼잣말로) 이 사람 대체 어디 간 거지...?

## 8. 평택항, 어느 곳. N

밤바다 위에 몇 척의 어선들이 둥둥 떠 있는 나른한 분위기의 평택항구.  
항구 저편에 낡은 SUV차량 한 대와 해양경찰 로고가 박힌 봉고차 한 대가 숨어있듯 세워져  
있다. SUV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후배 해경과 운전석에 앉아 있는 수더분하게 생긴 40대  
남자.

### 강태영

태영           나 어제 밤에 처음으로 가위 놀러왔어.  
후배           가위요?  
태영           응. 자다가 뭔가 느낌이 싸- 해서 눈을 확 떴거든? 옆을 딱 보  
                  니깐, 내 옆에 침보는 여자가 누워 있었어.  
후배           뭐야? 그럼 좋은 거 아녜요?  
태영           (찌푸리며) 그제... 그 여자 얼굴만 있고 몸은 없더라고.  
후배           헐. 대박. 그래서요?  
태영           깜짝 놀라서 확 깬데... 씨발, 침대가 다 젖어 있는 거야.  
후배           설마 오줌 싼 거예요?

태영            아니... 피였어.  
 후배            (놀라며) 피요?  
 태영            응...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깐 이것도 꿈이 었더라구... 왜 갑자기  
                   이런 꿈을 꾸 건지...  
 후배            음... 여자 조심 하라는 징조 아닐까요?

태영, 곰곰이 생각하더니...

태영            씨바. 그런가...?

태영은 ‘럭키스트라이크’ 담배 하나를 꺼내 물고는, 차 창문을 내린다.  
 그 순간, 밤바다에 불빛 하나가 보이고, 불빛이 있는 곳을 보면, 어선박 한 대가 평택항구  
 에 선박중이다.

태영            (담배를 뱉고는) 왔다. 실으러 가자. (무전기에 대고는) 자. 레디.  
                   B팀은 후방 스크린 알아서 잘하고.

## 9. 평택항, 선박장 앞. N

항구 선박장에 해경봉고가 나타나자, 어석반이 급히 뱃머리를 돌려 바다로 향하려한다.  
 순간, 위잉-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해경선이 어선박 뒤를 포위한다.  
 봉고에서 내리는 태영, 바닥에 가래침을 튼- 뱉고는, 휴대용 확성기에 대고 얘기한다.

태영            아! 아아! 선장님! 어째 고기는 많이 잡았어요?

선장실에서 선장으로 보이는 60대 남자와 선원 2명이 나온다.

선장            별로.  
 태영            우째요. 물이 따셔서 딴 데로 튀었나? 그래서 몇 마리나 잡았어요?

선장,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눈치다.

태영            선장님. 우리도 여름휴가에 선물 하난 들고 가야죠. 일단 상태부터  
                   함 봅시다.

선장은 포기한 듯 선원에게 고개를 까딱- 하면, 선원이 어선바닥에 있는 생선 보관실 문을  
 연다. 기잉-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생선 보관실문.  
 그리고, 그 안에서 겨울용 점퍼를 입은 밀항자들이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낸다.

태영            아이고, 한 여름에 다들 얼어 죽을 뻔 했구만. 자. 올라들 오세요.  
(올라오는 밀항자들의 수를 세며) 자. 한 놈. 두식이. 석 삼. 너구  
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다리. 구두쇠. 십자가. 이제 끝?

고개를 끄덕이는 선장.

태영            (후배해경한테) 구석구석 잘 뒤져봐. (선장한테) 숫자 딱 좋네요.  
고마워요. 선장님. 휴가선물로 이렇게 굴비세트까지 주시고.

허탈해하는 선장.

태영            (밀항자들을 향해) 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밀항자들이 태영에게 차례로 오면...

태영은 박스에 담긴 수갑을 꺼내, 밀항자들에게 차례차례 채워준다.

태영            (수갑을 채우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말 잘 듣는 관광객들 마냥 수갑을 차고 봉고에 올라타는 밀항자들.

이 때, 띠리리- 울리는 태영의 전화.

태영은 발신자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린다.

## 10. 룸살롱 밖/안. N

룸살롱 길건너에 차를 세우고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태영.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웨이터와 아가씨들이 태영이 익숙한 듯 자연스레 인사를 한다.

룸 사무실 앞에 서있는 화려한 셔츠를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눈알이 툭 튀어나와 ‘붕어’라고 불리는 남자다.

붕어            (태영을 보더니) 안에 계세요.

붕어가 슬며시 룸 사무실 문을 열어주면, 태영은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안으로 들어간다.

## 11. 룸살롱, 룸 사무실. N

태영이 안으로 들어오면, 태영의 시점으로 커다란 룸 사무실이 보인다.

매서운 눈빛의 40대 남자 박두만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옆으로 말총머리에 눈썹이 없는  
20대 남자 메기가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다.

박두만 (환영하듯) 여어~ 경정님 (의자를 툭툭-치며) 여기요. 여기.

태영이 자리에 앉으면,

박두만 경장님. 어째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요.

태영 (얼굴을 매만지며) 그... 그래?

박두만 (걱정하듯) 기력이 많이 쇠한 거 아녜요? 나랏일 하는 사람이 그럼 쓰나? (회를 집으며) 자, 요거 함 드셔봐요. 이게 오늘 잡은 미꾸라지 흰데요. 엄~청 힘 좋은 놈들만 잡아서 회친거라... 힘이...막. (자신의 성기를 잡고는) 여기가 막! 그냥 파탁파탁 선다니깐요.

두만이 자신의 성기를 잡았던 손으로 미꾸라지를 초장에 찍어서 태영에게 건넨다.

태영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먹는다.

박두만 (손에 묻은 초장을 핥아 먹으며) 경장님. 죽어가는 미꾸라지 살리려면 어케 하는지 알아요?

태영이 오물오물 씹으며 고개를 저으면,

박두만 죽어가는 미꾸라지들 있는 데예요. 천적인 메기를 풀어 넣는 거예요. 그럼 곧 죽었던 놈들이 있잖아요? 애네들이 그냥 살려고 아주... 지. 랄. 발. 광을 쳐요. 글구 보잖어요? 이 놈들이 전에 팔팔했을 때 보다 힘이 더 좋아져있다니깐요. 허허.

태영이 미꾸라지를 꿀꺽- 삼킨다.

박두만 어때요? 막 불끈불끈혀요?

태영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박두만 허허. 내가 설마 경장님께 구라 풀었을까 봐요? 나나 경장님이나 서로 구라 푸는 거 딱 질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태영 그... 그렇지.

두만은 태영을 보고 아빠미소를 한 번 날리고는 갑자기 손뼉을 짹- 친다.

그 소리에 움찔한 태영.

박두만 자~ 그럼, 이제 경장님께 약속한 걸 받는 타임을 한번 가져 볼까요? (손목을 흔들며) 짜란짜란~~

태영 (최대한 불쌍한 척)... 저... 박사장...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될까?

박두만 쓰읍... 내 기억이 빠꾸 된건가? 내 기억엔 경장님이 오늘까지 모든 돈 다 갚을 거다. 안 그러면 손목을 잘라도 된다. 그랬던 것



태영                    같은디...

                          손목 얘기는 안 했...

태영이 두만을 쳐다보면, 박두만이 자신을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다.

태영                    시간을 좀 만 더 줘. 그래도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매정하게 굴  
                              사인 아니잖어. 응?

박두만                그동안 나름 성의를 보여 준 것 같은데...

태영                    그... 그야 그렇지만....

박두만                경정님. 나도 이억원 되는 푼돈 가지고 우리 사이가 격해 지길 원치  
                              않아요. 그 돈이 뭐라고... 돈은 중요한 게 아녜요. 우리 사이의 믿음  
                              이 중요한 거지. 믿음!!

태영                    그치. 내가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 믿음. 박사장 솔직히 까놓고  
                              나도 최연희 그 년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나도 그뻘한테  
                              놀아난 피해자라니깐. 알잖아?

두만은 묵묵히 태영을 매섭게 노려볼 뿐이다.

태영            딱 일주일만 더 줘. 이자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갚을게.  
박두만        ...  
태영            (공손하게) 정말이야... 딱 일주일! 이번엔 진짜 내 손목 걸게.  
박두만        (태영을 노려보다가) 좋아요. 일주일. 일주일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으면. (메기를 가리키며) 우리 메기선수 투입이에요. 알았죠?  
태영            ... 그. 그럼.

태영이 메기를 쳐다보면, 메기는 방울토마토를 질경질경 씹어 먹으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 자연스레 시선을 돌리는 태영.

12. 룬살롱 앞. N

룸살롱 입구 앞에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거는 태영의 뒷모습.

남자(E)      여보세요?

태영      어... 동팔아. 나야. 내가 보내준 대포 폰인 거지?

동팔(E)      응.... 준비는....?

태영      이쪽은 문제없도록 해놨어. 돈은?

동팔(E)      니 말대로 전부 현금으로 만들었어.

태영      잘했어. 평택에 도착하면 연락 줘. 밀 항루트는 확보해 놔으니깐.  
앞으로 어떡할 진 만나서 얘기하자.

동팔(E)      진짜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이제 나한테 믿을 사람은 너

태영, 동팔이 전화 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는,

룸살롱 앞에 세워진 낡은 SUV차 문을 여는 태영.

붕어, 담배를 한번 슬쩍- 보고는, 길게 빨아본다.

태영 (문득) 야, 근데 박사장 옆에 있던 그 눈썹 없는 놈은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이던데.  
붕어 아, 그 새끼요? 박사장님이 고향에서 데리고 온 놈인데요. (절레절레) 완전 톨아이 새끼예요.  
태영 (긴장 한 듯) 왜 어떤데?  
붕어 이 바닥 애들도 웬만하면 그 새끼 피해요. 그 새끼 사람 내장까지 먹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태영 ... 에이 설마...  
붕어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새끼가 요 앞에 쭉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요 ... 그 새끼 고양이 시체 내장을 휘젓고 있더라구요.

Insert) 고양이 시체를 만지작거리는 메기. 이런 그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붕어.

붕어(E) 그리곤 저한테 뭐라 한 줄 하세요?

Insert) 메기가 씨익- 웃으며 말한다. “너도 질경질경 해볼래?”

붕어 씨발, 소름이 확-  
태영 (섬뜩)  
붕어 경정님 다음 번 까지 돈 안 갚으시면, 아마 그 새끼한테 그 소리 들으실꺼예요.

태영, 담배를 길게 빨더니,

태영 갚을 거야. 내가 방법이 있으니깐 이러지 않겠어?  
붕어 그래요? 혹시 최연희 찾은 거예요?  
태영 내 앞에서 그 년 이름 꺼내지 말랬지? 아주 그년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니깐.  
붕어 대체 최연희한테 얼마 털린 거예요?  
태영 이것 저것 하니깐 두 장 정도 되더라구.  
붕어 이억원요?  
태영 (끄덕)  
붕어 (한숨) 그러게 제가 그랬잖아요. 최연희 무서운 여자니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 안 듣고 그냥 좋다고 훌쩍 빠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녜요.  
태영 (웃는 얼굴로)... 너 말 잘한다. 선거 나가도 되겠어?  
붕어 (머쓱)... 그럼 최사장 아니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구요?  
태영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궁금해?

붕어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붕어 (문득) 아, 일 있는 걸 깜빡했네.

차에서 내리려는 붕어, 태영은 붕어의 벨트를 잡아 자리에 다시 앉힌다.

태영 붕어야. 이거 잘만 되면 몇 억 원이 들어오는 건이야.  
붕어 잘되면 인거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태영 야! 너랑 나랑 힘 합치는데 안 될 일이 있냐?  
붕어 (어이없어하며) 무슨 힘을 합쳐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태영 싫으면 말아. 그럼 나도 이제 뭐, 너 그 동안 짱개들 상대로 밀수  
사업한 거... 더 이상 모른척하지 않지 뭐. 아니, 무슨소리야. 체포  
해야겠다. 불법밀수 잡으면 실적도 쌓이고 좋지 뭐.  
붕어 (태영을 쳐다보다가 괴로워하며) 진짜 이러기에요?  
태영 너한테 큰 거 세장 줄게. 어때? 나쁘지 않잖아?  
붕어 ... (한숨) 무슨 건인데요?  
태영 ... 비밀 지켜야해. 절대 박두만한테 흘러 들어가면 안 돼.  
붕어 알았어요...  
태영 ... 고등학교 친구 놈이 서울에 있는 투자자문화사에 다니거든.  
근데 이놈이 큰 건을 사기 치셨는지, 중국으로 밀항하려고 해

Insert) 버스터미널에서 평택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는 호구.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태영(E) 이십프로 조건으로 내가 애 밀항 도주로 셋업 해주기로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깐 이십프로 받아서는 이도저도 안 되겠더라고.  
붕어 한 마디로 사기 친 놈, 빨대 뽑자는 거네요?  
태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여튼 내가 가두리 잘 쳐놓을 테니깐, 넌  
중간에서 돈만 잘 뉘으면 돼. 이 돈이 사라져도 신고 할 수도  
없어. 어때? 별거 아니지?  
붕어 (고민하더니) 정말 문제없는 거 맞죠?  
태영 에헤~ 나만 믿으라니깐.

자신만만한 태영, 붕어에게 윙크를 날린다.

붕어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 14. 공장 안. D

컨베이어 벨트 앞에 같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주간근무 여자 종업원들이 줄지어 서있다.  
기계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서 불량품이 없는지 확인하는 30대 여자.

## 서미란

공장 관리자가 스윽- 다가와 불량품 통을 살피더니,

관리자        너무 적은데?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냐?  
미란        아... 아니예요.

그 순간, 삐이- 벨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지고, 야근근무 종업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벨트 컨베이어에 달라붙는다. 미란은 관리자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하고, 관리자는 미란에게 지켜보겠다는 사인을 보낸다.

## 15. 노래주점 앞, 거리. N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불야성 골목길 사이로 스타렉스 한 대가 들어선다. 스타렉스가 노래주점 앞에 멈춰서면, 드르륵- 문이 열리고, 차에서 이삼십대 여자들이 줄줄이 내린다. 그녀들은 비를 맞지 않으려고 후다닥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 사이에서 미란이 보인다.

## 16. 노래주점 복도. N

양쪽으로 방들이 길게 늘어선 노래주점 복도.  
노래방 도우미들과 취객들이 스쳐 지나듯 보여 지고...  
하이힐 신은 미란이 웨이터 뒤를 따라 걷다가, 어느 방 앞에서 멈춰 선다.  
슬며시 문을 여는 웨이터.

## 17. 노래주점, 룸. N

웨이터가 문을 열면, 룸 안으로 들어오는 미란. 그녀의 시점으로 룸 안이 보여 진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각자 옆에 파트너를 정해서 앉아 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파트너 없이 혼자 앉아있는 노랑머리염색이 부분부분 남아있는 20대 초반의 남자. **진태**.

웨이터        (진태를 보고는) 얼굴 보셨죠?

그러자, 좌석 중앙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가 진태를 향해,

담배청년        (진태에게) 야, 저 정도면 에이스야. 이 새끼 눈 되게 높네.

웨이터가 진태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진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란을 데리고 나가려 한다.

진태            아... 저.... (미란을 지목하며) 저 분으로 할게요.  
담배청년        오오. 그렇게 고르더만... (미란에게) 누나, 잘 해줘요. 애가 육지  
                     밟은지 얼마 안 됐으니깐.  
미란            ...

진태의 옆자리에 앉는 미란.

Cut to:

파트너와 함께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자도 있고, 파트너를 주물럭거리는 남자도 있다. 반면, 이런 데가 어색한지 술만 마시고 있는 진태. 미란은 진태의 술잔이 비워지면 바로 맥주를 채워 넣는다. 진태는 술잔이 채워지자마자 곧바로 맥주를 목구멍에 털어 넣는다.

미란            천천히 마셔요.

진태, 원 샷하고 술잔을 톡 내려놓으면,

미란            (진태에게 안주를 먹여주며) 근데 어디서 왔어요?  
진태            (안주를 받아먹고는) 네?  
미란            (담배청년을 가리키며) 아까 친구가 육지 밟은 지 오래됐다 해서.  
진태            친구 아네요.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예요...  
미란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데요?  
진태            ... 울릉도에서 왔어요.  
미란            울릉도? 독도 있는데?  
진태            (끄덕)  
미란            (신기한 듯) 와~ 울릉도 사람 참 봐. 신기하다.

미란이 진태를 신기한 듯 쳐다보자, 진태는 부끄러운 듯 미란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술을 따른다. 그 모습이 귀여워 피식- 웃는 미란.

미란            여기서 무슨 일 하는데?  
진태            ... 차 팔아요. 중고차.  
미란            진짜? 나중에 부탁할 있으면 얘기해야겠다.

진태, 맥주를 다시 한 번 원 샷 하더니,

진태            (뜬금없이) 나 누나 맘에 들어요.

미란 (뜬금없는 고백에 어이없는) 응?  
 진태 ... 누나 맘에 든다고요.  
 미란 (영혼없이) 고마워.  
 진태 정말이에요.  
 미란 너도 참. 얼마 봤다고.  
 진태 그게 뭐 중요한가요. 누나... 연락처 좀 알려줘요.  
 미란 연락처?  
 진태 네.  
 미란 그건 좀... 손님하고 연락처 주고받으면 안 되서...  
 진태 다음에 누나랑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하게)  
 좀 가르쳐 줘요.

미란, 난감한 얼굴이다.

## 18. 아파트, 미란의 집, 거실. N

띠리릭-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마트봉지를 든 미란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18평정도 규모로 보이는 미란의 집...

Cut to;

치익- 맥주 캔이 따지고, 미란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본다.  
 이 때, 울리는 카카오 톡 수신소리. 발신자 '울릉도'다.

- 아직 일하는 중? 끝났으면 같이 술 마실래요?
- 미안. 나 집에 들어왔어.
- $\pi\pi$  그럼 내일은 시간 어때요?

미란은 답 글을 남기려다가 무시하기로 맘먹은 듯. 휴대폰을 소파 위에 톡- 내려놓는다.

미란 (중얼거리듯) 괜히 알려줘서....귀찮게 시리...

Cut to;

정규방송이 끝난 시간...

(소리) 야!!!

굵은 남자 목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는 미란.  
 눈을 뜨면 그녀 앞에 안경 쓴 뚱뚱한 정장차림의 남자가 서 있다... 미란의 남편이다.

미란 어, 왔어?  
 남편 (맥주 캔을 보고) 지랄. 팔자 좋네.  
 미란 미안, 깜박 졸았어.  
 남편 누군 새벽까지 일하느라 등골 빠지는데, 누군 맥주나 쳐 마시고 자빠져 자고 있고...  
 미란 (일어서며) 치울게.

일어서서 맥주 캔을 치우려는 미란.  
 그 순간, 퍽!!!  
 남편이 미란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미란 악!!

비명소리를 내며 주저앉는 미란.

남편 야. (발로 미란의 머리를 툭-치며) 아직도 네 포지션이 어떤지 판단 안서? 지금 내가 누구 땀에 이 꼴로 사는데... 엉?! 네가 진 빚 갚으려고 내가 이 시간까지 개 고생하는 거 아냐!!  
 미란 (굴욕적이지만 애써 참으며) 잘못했어. 미안해.  
 남편 그러니깐 너같이 멍청한 애가 무슨 얼어 죽을 주식을 한다고... (넥타이를 푸르며) 아이 씨발, 기분 더럽네. 야! 방으로 와.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 미란이 가만히 있자,

남편(E) (버럭) 안 와?!

미란이 괴로워 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 19. 아파트, 미란의 집, 안방. N

침대 위에 미란의 무릎을 꿇리고 치마를 올리는 남편.  
 미란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는다. 찰칵찰칵- 벨트 끄르는 소리가 들린다.  
 고통스럽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참는 미란.

insert) 미란의 휴대폰에 카톡이 온다. 어두운 거실에서 껌벅껌벅 거리는 미란의 휴대폰.

드르릉-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든 남편.



## 20. 아파트, 미란의 집, 거실. N

미란이 메마른 낮빛으로 불이 꺼진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는다.  
깜박 거리는 휴대폰을 보면, 진태가 보낸 카톡이 와있다.

- 진짜 안 돼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만나고 싶은데ㅠㅠ

휴대폰을 보다가, 창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미란.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을 한 참 동안 응시한다.

## 21. 평택 여객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D

화면 가득, 차 안에서 태영이 초조한 얼굴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에 버스 한 대가 멈춰서고, 사람들이 한 명씩 내리면...  
한 명, 한 명 유심히 쳐다보는 태영.

하지만, 이번에도 기다리던 친구 동팔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으로 동팔한테 전화를 걸어보는 태영.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태영 (중얼거리듯) 미치겠네. 대체 어디 간 거야.

## 22. 해경청, 복도-사무실. N

태영이 힘 빠진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해경청 사무실로 들어서면, 동료들이 분주해 보인다.  
후배가 태영에게 다가오더니,

후배	(목소리 낮추며) 어딴다 이제 오세요?
태영	뭐 조사 좀 할 게 있어서. 왜? 뭘 일 있어?
후배	오늘 아침에 평택호에서 시체가 발견 되었어요. 그것도 토막난.
태영	(놀라며) 시체? (혹시나 싶어서) 피해자가 누구래?
후배	아직 몰라요. 그게 다 조각조각 잘라나서... 허벅지 어깨부터 손목. 오른쪽 대퇴부에서 아래쪽 까지만 들어있었대요. 감식반 말론 일부러 피해자 신분을 숨기려 한 것 같다는데... 뭔가 이상한게...
태영	뭐가 이상해?
후배	허벅지다리에 잉어 문신이 그려져 있었어요.
태영	(놀라며) 잉어문신?

태영이 놀라자, 해경청 내 모두가 태영을 쳐다본다.

후배                왜요?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태영                어? (얼버무리며) 아... 아냐...

## 23. 국밥집. N

국밥집에서 붕어가 국밥을 먹고 있는 태영.

이 때, 가게 안으로 붕어가 들어와서 태영의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태영                어때, 알아봤어?  
붕어                며칠 전 부터, 짱개 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최연철 쫓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태영                그래? 뭔 일로?  
붕어                뭐, 최연희랑 엮인 거면 사기 아니겠어요?  
태영                ...  
붕어                근데, 경찰은 아직 잉어시체가 최연희인 걸 모르는 눈치 같던데... 애기 안 한 거예요?  
태영                ... 야이 붕어대가라. 그럼 내가 경찰한테 최연희가 나랑 비밀리에 술집사업한 동업자고, 내 돈 이억원 빚지고 튼 여자라고 얘기할까? 그냥 내가 최연철 죽었다고 자백하라고 해.  
붕어                ... 그나저나 최연희가 죽었으니, 이제 돈 받을 방법은 그 호구 친구 밖에 없겠네요.

붕어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태영.

태영                그 새끼도 사라졌어.  
붕어                (놀라며) 네? 그게 뭔 말이에요?  
태영                연락이 안 돼 (머리를 긁적이며) 아씨! 분명 오늘 온다고 했는데...

괴로워하는 태영...

붕어, 이런 태영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붕어                딱 보니깐, 뒤통수 맞았네.  
태영                뭘 소리야? 그게?  
붕어                보면 모르겠어요? 그 친구, 경정님 이용한 거예요. 경찰 속일려고 경정님한테 평택으로 온다고 설레발쳐놓고 다른 곳으로 튼 거예요. 원래 현금으로 큰 돈 가진 놈들은 누구도 안 믿거든요. 믿어서도 안 되고... 근데... (눈치를 보고 말 끝을 흐리는)  
태영                나 같은 놈을 믿겠냐... 이 말이지?  
붕어                이럴 땐 눈치가 빠르는데...

태영 (욱하며) 이게 열 받아 죽겠는데...

그 순간, 태영에게 전 화가 걸려온다. 태영이 발신자를 보면,

봉어 누구예요? 호구예요?

태영 (실망하며) 아니. 담당관. 아씨. 또 뭘 귀찮게 하려고.  
(전화를 받고는 예의바르게) 네. 담당관님. 저요? 지금 밀수제 보가  
있어서 수사 중에... (똥 얘기를 듣더니) 저를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태영.

태영 (가우뚱) 뭐지?

봉어 왜요?

태영 서울에서 누가 날 찾아 왔다는데? (문득) 호군가?

봉어 그럴 리가 없을텐데.

태영 야! 사람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그러니깐 니가 친구가 없는거야.  
내가 전화할 테니깐, 스탠바이 하고 있어. (일어나며) 그나저나  
이 새끼 이렇게 대놓고 찾아오면 어찌자는 거야.

## 24. 해경청, 휴게실. N

해경들이 들락거리는 휴게실안.

태영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서서 호구가 있는지 주변을 살피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 때, 휴대폰 게임을 하던 인상 좋은 뚱뚱한 체형의 50대 남자 유명구가 태영을 보더니,

명구 (미소) 강태영씨죠?

태영 아.. 네.

명구 (주머니에서 경찰증을 꺼내며) 서울 서대문구 유명구입니다.

태영 (경찰증을 보고는 순간 당황) 아. 네... 어떤 일로?

명구 (미소) 뭐 좀 물어볼게 있어서요.

태영 (주변 눈치를 보며) 뭐를...

명구 혹시 이 사람 아세요?

태영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명구.

명구 이름은 오동팔.

태영, 이름을 듣는 순간 흠칫 놀라지만, 애써 감추며... 사진을 들여다본다.

태영 음...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잘못이라도 했나요? 인상만 보면 나쁜 짓 할 것 같진 않은데...

명구 인상이야 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잖아요? (미소)

태영 ...

명구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사라졌어요. 십억 가까운 돈 가방을 들고 평택으로 떠나는 버스를 탄 것까진 확인 했는데... 그 뒤로 사라졌어요.

태영 십억이요? (사진을 뚫어지게 보더니) 흠.... 이렇게 봐선 정말 모르겠네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저한테...

명구 아. 그게. 확인해 보니깐 오동팔이가 이 지역 출신이더라구요. 고등학교가 평택고던데. 평택고 십이기.

태영 아... 그래요?

명구가 태영을 뵈히 보더니,

명구 강태영씨도 평택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보니깐 오동팔이랑 동기 시던데. 심지어 같은 반이었고... (미소)

태영 (당황) 네?

태영은 말을 잊지 못한다.

명구 우리 이러지 말고 식사나 하면서 얘기 할래요? 여기 와서 아직 밥 한끼도 못 먹어서...

주변 해경들이 신경이 쓰이는 태영.

태영 ... 그.. 그러시죠.

명구가 앞장서서 휴게실을 나서면, 인상을 구기며 따라나서는 태영.

## 25. 호텔, 사우나 실내로비. N

화면 가득, 사우나 입구에 붙어있는 ‘직원모집, 청년 환영’ 안내판이 보인다.  
 사우나 카운터에는 정복차림의 지배인이 시계만 주시하고 있다.  
 짤랑- 종소리와 함께, 유니폼 차림의 종만이 헐레벌떡 사우나 안으로 들어오면,

지배인 삼분 늦으셨네요.

종만 (굽실거리며) 죄송합니다. 집 안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배인 집 안에 일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이유가 뭐든

한 달에 두 번 넘게 지각하면 자른다고.  
 중만 (굽실거리며)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배인 난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에 늦어서 조치 받아도 탓하지 마요.  
 중만 ...  
 지배인 아, 그리고, (음료수 가판대를 가리키며) 요즘 음료수가 금방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뭐 짚이는 거 없어요?  
 중만 요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잘 나갑니다.  
 지배인 아무리 봐도 판매량이란 주문량이 맞질 않던데....

의심쩍은 눈빛으로 중만을 쳐다보는 지배인.  
 점원복을 벗고 있던 알바생이 중만의 눈치를 본다.

지배인 뭐, 댔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일방적으로 말하고 실내로비를 나가려는 지배인.  
 중만은 곱씹을수록 기분이 나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중만 그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조심하라뇨? 음료수 정돈 제 돈으로  
 마십니다.  
 지배인 뭘, 그렇게 욕하고 그래요. 괜한 오해 마요. 최종만썰 의심한다고  
 한 건 아니니까.

지배인은 히죽거리며 실내로비를 나가다가, 중만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지배인 (중얼거리며) 아~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 뵈으면 안 된다니깐.

부글부글 끓지만, 화를 삭히는 중만.  
 알바생이 눈치를 보다가 중만에게 다가와 인사하며,

알바생 저.. 갈게요.  
 중만 어. 그래. 수고했어. (문득)아! 혹시... 물건 잃어버려서 찾으러  
 온 사람 없었어?  
 알바생 없었는데요. (문득) 아, 어떤 사람을 찾는 사람은 있었어요.  
 중만 그... 그래?  
 알바생 네, 이 근처에서 실종되었다던데요. 혹시 몰라서 전단지 계산대  
 위에 두었어요.

알바생이 실외로비로 나가면, 중만은 계산대 위에 있는 실종 전 단지를 살펴본다.  
 전단지에 박혀있는 사진. 뚱뚱하고 안경 쓴 40대 남자다...  
 중만은 처음 보는 얼굴인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만 (혼잣말로) 이 사람은 아니었는데...

## 26. 호텔, 사우나 분실물보관실. N

주변을 살피고는 분실물 보관실 안으로 들어가는 중만.

보스턴백은 어제 쑤셔 넣은 상태 그대로, 선반 하단 아래 구석에 놓여있다.

보스턴백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중만의 얼굴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남자의 신음소리가 선행된다.

## 27. 모텔 방. D

미란의 상체 위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진태.

반면, 밑에 누운 미란은 멀뚱한 얼굴이다.

진태는 마지막 힘을 다한 듯, 미란의 몸에 털썩- 쓰러지더니 죽은 듯이 멈춰있다.

미란 (인상을 찌푸리며)... 무거워.

Cut to;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미란과 진태. 천장에는 팬이 돌아가고 있다.

진태 이러자고 만나자 했던 건 아닌데...

미란 거짓말. 네 목적은 침부터 이거 아녘어?

진태 (머쓱해 하며) 아닌데...

미란 (의례적으로) 좋았어.

진태 (몸을 트며 좋아하며)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는 진태를 보며 피식- 웃는 미란.

진태 (몸을 세우며) 나... 사실 여자랑 처음이야.

미란 그래? 처음이면 좀 더 어린 여자를 선택하지 그랬어?

진태 난 원래 연상이 좋아. 그리고 애기했잖아. 누난 내 스타일이라고.

미란 (피식) 뭐,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들으니깐 나쁘진 않네.

진태 (빠쭉) 진짠데.

몸을 일으켜 브래지어를 채우는 미란.

커튼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미란의 등에 새겨진 멍 자국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진태, 미란의 멍 자국을 보더니,

진태           (놀라며) 여기 왜 그래?  
미란           응? (알버무리며) ... 넘어졌어.  
진태           넘어져?

진태, 스탠드 불을 켜서 미란의 몸을 훑어본다.

미란           왜 이래?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는 미란, 하지만 몸 구석구석에 새겨진 멍 자국을 감추기는 어렵다.

진태           이것들 맞은 자국이지?  
미란           아니야. 넘어졌다니깐.  
진태           말도 안 돼. 넘어졌는데 어떻게 몸 전체에 멍 자국이 생겨.  
미란           진짜라니깐. 나 사실 엄청 덜렁대거든.  
진태           ... 혹시 누나 남편이 이랬어?  
미란           ... 가야겠다. 늦었어.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려는 미란.  
그러자, 진태가 미란의 손목을 짊 잡고는 그녀를 주저앉힌다.

미란           아퍼. 이거 봐.

손목을 놓아주지 않는 진태.

진태           남편이 이런 거지?  
미란           진짜 넘어졌다니깐. 애가 왜 이래.  
진태           그런거네. 그런 새끼랑 왜 같이 살아?  
미란           ... 너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손목을 뿌리치며) 이거 봐.

하지만, 손목을 놓지 않는 진태.

진태           여자 때리는 새끼, 그 짓거리 평생 못 고쳐. 우리 집 끈대가 그랬  
                거든.  
미란           ...  
진태           예전에 끈대가 엄마를 하도 두들겨 패길래, 내가 끈대한테 달려든  
                적이 있어. 근데, 웃긴 게 뭘 줄 알아? 엄만 오히려 나를 말리더  
                라고... 이미 끈대의 노예가 되어 버린 거지. 그 때 알았어. 익숙  
                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미란           ....

진태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뭔지 알아? 곧대 새끼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랑 산다고 집을 나가 버리더라구. 결국 엄만 병신  
                  같이 본전도 못 찾은 거지.

미란            ...

진태            잘 생각해. 올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니깐 그 전에  
                  결판 내야해.

미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냐.

진태            이혼이 어려우면 딴 방법도 있어.

미란            그게 뭔데?

진태            누나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순간, 정적.

미란            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진태            (피식 웃으며) 아님 말고...

미란            .....

## 28. 미란의 집, 주방. N

휴대 폰을 보면서 미란이 차려준 밥을 먹는 남편.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젊은 여자 사진을 넘기면서 보다가, 수영복 차림의 사진에서 동  
작을 멈춘다.

남편            (미란에게 휴대 폰을 보여 주며) 죽이지?

미란            누군데?

남편            이번에 우리 팀에 들어온 신입. 마스크는 귀여운데 바디는 쪽쪽빵빵.  
                  근데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있더라고...

미란            (의례적으로) 대단하네.

남편            (빈정거리며) 응. 누구랑은 다르지.

미란            (웁하지만 침착하게) 그렇게 괜찮은 애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  
                  하든가.

남편            뭐? 야?

미란이 남편의 부름에 남편을 쳐다보면,

남편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도자기 머그컵을 미란을 향해 던진다.

퍽! 쟁그랑-

깨진 도자기 머그컵 조각들. 그 위로 핏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남편            같이 먹으라고? 야 이 미친년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그럴  
                  돈이 어딴거?! 엉?! 어떤 병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잖아!

미란의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남편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다시 먹으려다가 손가락을 턱- 내려놓으며)  
에이 씨발. 밥 맛 떨어지게.

## 29. 아파트, 지하 주차장. D

튜닝을 했지만 촌스러운 구형 소나타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있다.  
차 안에선 진태가 천진난만하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추고 있다.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눌러 쓴 미란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진태가 미란을 발견하고 창문을 내리고는,

진태 (해맑은 표정으로) 누나, 타~

## 30. 지하주차장, 진태의 차 안. D

적막이 흐르는 차 안.  
마스크를 벗은 미란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다.  
진태가 운전대를 마구 두들기며...

진태 개새끼!!! 개새끼!!!!

한참 동안 분을 풀던 진태, 점차 진정 하더니...

진태 (덤덤하게) 죽어야 해. 그런 놈은.

미란 !!

진태 (미란을 쳐다보며) 누나, 그 새끼 내가 죽여줄게!

미란 (겁먹은 듯) 너... 왜 그래...? 무섭게...

진태 누나 나 믿지?

진태를 빤히 쳐다보는 미란.  
위잉-- 청소기 소리가 선행되며...

## 31. 미란의 집, 거실-안방. D

청소기를 돌리는 미란, 순간 뭔가 떠올랐는지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서랍에서 ‘생명보험증권’ 파일을 꺼낸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남편 생명보험 청약내용을 꼼꼼히 보는 미란. 손가락이 금액이 적혀있는 데에서 멈춘다.

미란                    십 억....

## 32. 회전 초밥집. N

명구 앞에 초밥 그릇이 잔뜩 쌓여져 있다. 또 다시, 비싼 초밥을 고르는 명구... 그 옆에서 뭔가 생각하는 듯 한 표정의 태영.

태영                    (능청스럽게) 아, 오동팔이 그 오동팔이었구나. 어쩐지 이름이 낯설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 자식 많이 바뀌었네요. 학교 졸업하고 난 뒤로 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깐, 못 알아보네요. 하하.

명구, 대꾸 없이 초밥 먹는 거에 열중한다.

태영                    근데, 오동팔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요? 야~ 개는 학교 다닐 때 완전 범생이었는데...

명구, 맥주로 입가심을 한 번 하고는,

명구                    뭐, 자네 입장도 난처했겠지. 횡령해서 밀항하려는 놈이랑 친구인 걸 감추고 싶었을 거야.

태영                    ...

명구                    이해해. 국민세금 받아먹는 사람이면 다 그런 거지 뭐. 친척이나 친구 중에 범죄자 나오면 괜히 자기까지 의심 받는 게 이쪽 업계 니깐. 안 그래?

태영                    (머쓱) 맞... 맞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담당관님께는 이 얘기를...

명구                    안심해. 얘기하진 않았으니깐.

태영                    (꾸벅)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구                    됐어됐어. 어차피 나도 위에서 여기로 가라고 하니깐 흥내만 내려 여기 온 거야. 그렇게 큰 돈 들고 다니는 놈이 설마 고향친구한테 연락해서 밀항 도와달라 했겠어?

태영                    (뜨금) 그...그쵸. 근데 정말로 저한테 연락 오지 않았습니까.

명구                    알아. 분명 그 놈은 다른 데로 내뺐겠지.

태영                    ...

명구                    (술을 목구멍에 털어놓고는) 잘 됐어. 이 참에 휴가 온 셈 치고 즐

이 때, 진동이 울리는 태영의 휴대폰. 발신자를 보면, ‘박두만 개새끼’다.  
태영, 조건반사적으로 긴 한숨을 내 쉬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명구와 함께 사진을 찍는 태영. 찰칵 소리.  
태영은 사진을 찍고, 계산대로 가서는,

주인, 명구 앞에 쌓인 초밥그릇을 보며,

울며 거자 먹기로 카드를 내미는 태영.  
명구가 엄지척을 날리자, 억지 미소를 짓는다.

태영이 초밥집을 나오면서 툭툭거리며,

태영                    더럽게 많이 쳐 먹었네, 능구렁이 같은 새끼...

태영이 차를 타고 사라지면...

초밥 집에서 이쑤시개를 물고 나오는 명구...

태영이 사라진 곳을 유심히 쳐다본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노래소리 선행되며...

### 34. 룬살롱, 룬. N

‘내생에 봄날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박두만.

메기는 관심 없이 의자에 앉아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고,

노래방 기계 앞에는 붕어가 벌 서 듯이 서있다.

문이 열리고, 태영이 쭈뼛-거리며 들어오면, 박두만이 태영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박두만                (마이크에 대고) 여어~ 멋쟁이 경정님. 같이 불러요.

태영                    응? 아냐.

태영, 붕어를 슬쩍- 보면, 시선을 피하는 붕어.

박두만                (노래 후렴구 부분이 오자) 촛불처럼~~~ (태영에게 어깨동무 한 채  
마이크를 넘기면)

태영                    (마이크에 대고) 촛불처럼.

박두만                짧은사랑~~ (마이크 태영에게)

태영                    (마이크에 대고) 짧은사랑.

박두만                내 한 몸 아낌없이 바치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애~~ 봄날은 간다~!

노래를 종료시키는 두만.

박두만                (태영에게 어깨동무한 채로 마이크를 대고) 호구 잡았다면서요?

태영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두만.

태영이 붕어를 힐끔 보면, 붕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다.

태영                    (마이크 소리) 무슨 호구...? 난 잘 모르는 애긴데...?

박두만                (마이크에 대고) 허허. 또 실레발은. 큰돈이 굴러 들어왔다던디.

태영                    (생각난 듯) 아~ 여름 보너스? 그거 쥐꼬리만큼 들어왔어. 알면서...

박두만                아우~ 난 경정님 이런 농담 너무 좋아. 막 끌려 (메기를 보고) 안

그래?

메기는 말없이 방울토마토만 먹고 있다.  
긴장하는 태영.

박두만           붕어. 네가 그랬잖아? 경정님이 호구 잡아서 큰 돈 만질 거라고.

태영과 박두만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붕어.

박두만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잖아. 경정님은 믿으면 안 된다. 분명  
                    들어와서 설레발을 또 칠 거다. 그리고 혼자 돈 먹고 나를 거라고.  
붕어           (당황) 저..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황~~!!!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방안에 울려 퍼진다.  
박두만이 마이크를 붕어를 향해 던졌다. 벽에 부딪히고 떨어진 마이크.

박두만           (붕어를 향해) 이 새끼가 어디 앞이라고 구라를 풀어.

살벌함이 감도는 룸...  
메기만 태연하게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다.

태영           박사장... 진정하고... 알잖아. 나도 돈 마련하느라 열나게 뛰어  
                    다니고 있어. 글구 아직, 우리가 약속한 일주일이 되지 않았잖아.  
                    (휴대폰을 보더니) 아직 이틀이나 남았어. (휴대폰을 들이밀며)  
                    봐봐. 내가 여기 캘린더에 체크했 다니깐.

박두만, 태영을 한 참을 노려보다가....

박두만           야. 붕어 일로 와봐.

붕어, 박두만 앞으로 재빨리 가면...  
퍽- 붕어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 꽂는 박두만.  
붕어, 우당탕- 나가떨어진다.

박두만           (붕어를 향해) 니 잘못이 뭔지 알아? 넌 날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한 경정님마저 옛 먹일라 했어. 경정님 얘기 들었지?  
                    설령 자기가 칼에 찔려 죽는다 해도, 빌린 돈은 다 갚고 죽는다고.  
                    근데 너는 이런 훌륭한 경정님한테 모함질이나 해썬고... 그러니깐  
                    니가 붕어소리 듣는거여. 안 그래요? 경정님?

태영           (억지로) 그.... 그치...

박두만           (인상 팍 쓰며) 뭐하냐? 경정님께 안 빌고.

말이 떨어지지 마자, 붕어는 무릎 꿇고 태영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붕어                죄.. 죄송합니다. 경정님.  
박두만            야! 이게 죄송하다고 말로 끝낼 일이어?! 적어도 손목 하나는...  
태영                (말을 끊으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붕어를 보며)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박두만            아니, 그 정도론 안 돼요. 요즘 이 썩끼가 누가 지 주인인지 모르는  
                      것 같은디, 이럴 땐 확실하게 알려줘야해요.

박두만이 메기를 보고 손가락을 까딱하자, 메기가 품 안에서 회칼을 꺼낸다.  
허걱! 하는 태영.

태영                (순간 떠오른 척) 아~ 아~ 맞다. 맞다. 호구 얘기 사실이야. 내가  
                      붕어한테 얘기했었네. 맞아. 맞아.  
박두만            (시치미) 뭐여, 그럼, 붕어가 거짓말 한 게 아녀요?  
태영                (끄덕끄덕) 응. 그런 것 같아.  
박두만            같아요?  
태영                아니... 붕어 말이 맞아...

붕어, 코에서 흐르는 피를 스윽- 닦는다.

박두만            거 참. 빨리 말하지 그랬어요. 내 괜히 미한해지잖아요.  
태영                그러게 내가 실수했네.

두만이 손가락을 까딱하면, 메기가 자리에 앉고는 다시 방울토마토를 질경질경 먹어댄다.  
눈치를 살피는 태영...

## 35. 룬살롱 앞, 차안 N

비가 내리는 룬살롱 앞.

명구가 보낸 '초밥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 태영과 코에 휴지를 꽂아 넣은 붕어가 서있다.

붕어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영                (한숨) 뭐 너라고 별수 있었겠냐...  
붕어                ... 이제 진짜 어떻게 하실려고요?  
태영                호구 새끼 찾아야지.  
붕어                (답답) 얘기했잖아요. 그 호구 다른 데로 날랐다니깐요.

태영, 명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붕어에게 보여준다.

붕어            요즘 이런 것도 하고 다니세요?  
태영            아니. 이 사람 좀 보라고.  
붕어            누구데요?  
태영            호구 잡으러 온 서울 짬새야.  
붕어            (한숨) 이제 짬새까지 끼어있어요?  
태영            이 인간. 아주 능구렁이 같은 놈이야. 나한테 여기에 마치 휴가 온 것처럼 말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호구정보 캐고 다니고 있어. 내가 봤을 땐, 이 능구렁이도 호구 잡아서 뒷 돈 챙기려는 것 같아. 안 그럼 이렇게 혼자 수사하진 않거든.  
붕어            그래서 저한테 어쩌라고요?  
태영            니가 이 인간 좀 따라 다녀봐. 뒷조사하면 뭔가 정보가 나오지 않겠어?  
붕어            이젠 짬새 꿈무늬 따라다니는 것 까지 시키세요?  
태영            난 얼굴 팔려서 안 되잖아. 글구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때야? 우린 이미 한 배를 탔다고.  
붕어            (혼잣말로) 아...씨... 진짜 똥도 이런 똥을 밟아가지고.  
태영            뭐?  
붕어            경정님 아시죠? 지금 멀리 와 계신 거.  
태영            ... (담배꽁초 던지며) 몰라. 씨발.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냐. 안 그래?  
붕어            ...

빗방울이 거세게 쏟아진다.

### 36. 마트, 주차장. N

차창 와이퍼 넘어, 우산을 쓴 미란이 모습을 드러낸다.  
진태의 구형 소나타가 미란에게 위치를 알려주듯 깜박이를 깜박거리린다.

### 37. 마트, 주차장, 진태의 차 안. N

흔들리는 와이퍼...

미란            진짜 할려구?  
진태            그럼 하지 말까?  
미란            ... 네가 이러는 이유가 뭔데?  
진태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유가 필요해?

와이퍼 소리만 들리는 차 안...

미란 ... 할꺼면 제대로 해야 돼... 어설프게 했다간 너나 나나 철창  
신세야.  
진태 당연하지. 그래서 생각 좀 해봤는데... 사고로 처리하는 게 젤  
날 것 같아.  
미란 사고?  
진태 응. 교통사고. 차로 들이 받아 버리는 거지.  
미란 (한숨) 후... 그건 안 돼. 티브에서 못 봤어? 타이어흔적, 자동차  
부품조각 만으로도, 쉽게 잡아낼 수 있다구.  
진태 괜찮아. 어차피 이 차 대포차니깐.  
미란 대포차라구?  
진태 응. 회사에 가끔 이런 대포차 멀리로 들어오거든. 이 차 조희해도  
안 나오는 차야.  
미란 ...

딱히 할 말 없는 미란, 문득 떠오른 듯,

미란 (사진을 건네며) 여기, 부탁한 사진.

진태, 미란의 남편 사진을 뚫어지게 본다.

진태 남편이 단골로 가는 바가 있다고 했지?  
미란 응. 평택역 근처에 있는 나비라는 바야.  
진태 (주머니에 넣으며) 오케이. 알아서 할게.

미란이 진태를 쳐다보면, 진태가 미란의 볼에 손을 대고는,

진태 이 개 자식만 없어지면 누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는 키스를 하려고 미란에게 다가오는 진태.

미란 여... 여기서?  
진태 왜? 싫어?  
미란 (달래듯이) 우리 이 일 잘 끝나고 하자. 응?  
진태 (시무룩)  
미란 일 잘 끝나면 같이 떠나자.  
진태 어디로?  
미란 어디든...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미란, 진태의 불에 뽀뽀해준다.  
시무룩했던 진태, 표정이 밝아진다.

### 38. 병원, 복도. D

낡은 구두를 신은 남자의 발이 어딘가로 급히 향하고 있다.  
낮빛이 어두운 중만, 병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 39. 병원, 6인실 병실. D

중만이 6인실 병실 안으로 들어오면, 병실 안에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북적거린다.

소리(v.o)      아빠. 여기야.

소리 난 곳으로 시선이 가면, 다리에 붕대를 하고 누워있는 아내 영선과 침대 앞 의자에 앉  
아 있는 딸 지연(20대 초반)이 보인다.

지연            (나무라듯) 아빠 어떻게 서울에 사는 나보다 늦게 와.  
중만            대신 일해 줄 사람이 없어서... 미안.  
지연            아빠 일하는 곳은 사정도 안 봐줘?  
영선            (지연을 말리며) 그만해. 아빠도 사정이 있었겠지.

영선의 얘기에 한발 물러나는 지연.  
중만, 영선의 다리를 보더니,

중만            좀 어때?  
영선            괜찮아...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어. 삼사일 있다가 퇴원할 수 있대.  
                 그나마 고모한테 고맙네. 어머님 봐주신다 하셔서.  
지연            고맙긴. 뭘 고마워. 이럴 때도 나무라 하면, 그게 가족이야?  
                 평소엔 할머니 돌보는 건 손 하나 까딱 안하면서, 할아버지 유산  
                 챙길 땐, 죽자 살자 자식권리 찾고. 아우~ 진짜 얄미워.

지연의 말이 틀린 말은 없는지, 토를 달지 않는 중만과 영선.  
중만, 영선을 쳐다보고는 화제를 돌린다.

중만            어떻게 된 거야?  
영선            계단에서 넘어졌어.  
지연            할머니가 그랬다는 건 왜 빼먹어. 할머니가 그 망해버린 헛집

가겠다고, 공원계단에서 난리 피우셔서, 그걸 말리다가 떨어  
진거래. 근데 할머니 오히려 엄마가 자길 죽이려 했다고 난리  
시구...

중만 ...

#### 40. 6인용 병실 앞 복도. D

환자와 병원관계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  
복도에 놓인 긴 의자에 중만과 지연이 앉아있다.

지연 저기... 아빠, 병원빈 괜찮아?  
중만 이 정도 돈은 있어.  
지연 그래? 엄마는 걱정하던데...  
중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 좀 있으니깐 걱정마.  
지연 ... 그래?

중만을 슬쩍 보는 지연, 긴 한숨을 내쉰다.

지연 (한숨) 하아~  
중만 왜 무슨 일 있어?  
지연 아니... 이번에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반에서 나만 지금  
레슨을 못 받고 있거든... 나야 뭐. 학자금 대출금 갚고 월세 내는  
것만도 빠듯한 상황이니깐...  
중만 얼마가 필요한 건데?  
지연 가능하면 삼백만원? 안 되면 이백만원이라도.  
중만 레슨비가 그렇게 비싸?  
지연 레슨만 하는 게 아니잖아. 대회 준비도 해야하고... 의상도 준비해  
야 하고...

난색을 보이는 중만.

지연 (눈치 채고) 신경 쓰지 마. 이번에 안 나가지 뭐.  
중만 미안하다.  
지연 아니야... 어차피 기대도 안했어...

지연은 한숨을 푹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들어간다.

중만 ...

## 41. 중만의 집 앞. D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중만,  
집 앞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고모와 마주한다.

고모            왔어?  
중만            응. 엄마는?  
고모            안에 있어.  
중만            이상한 소리하지 않아?  
고모            (빈정거리듯) 뭐, 올케가 엄말 죽이려 했다는 소리 말곤 딱히 없어.  
중만            (한숨) 말도 안 되는 소리 거 알지?  
고모            모르지, 뭐. 옛날부터 엄마랑 올케 서로 잘 안 맞았잖아.  
중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고모            넌 몰라. 올케 암전해보여도 의외로 약삭빠른 면이 있거든.

아내에 대한 비난에 기분이 나빠진 중만.

중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치매 걸린 뒤로 지금까지 계속 돌봐온  
                  여자야. 아버지 때도 그랬고.  
고모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 이 집도 니들만 물려받지 않겠어?  
                  게다가 너흰 아빠랑 엄마한테 잘못을 저질렀잖아.  
중만            잘못을 저질러?  
고모            아버지 헛집 문 닫게 만들었잖아. 그 헛집 자리 잡을 때까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중만            (울컥)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줄 알아? 주변에 헛집이 우후  
                  죽순으로 생겨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고모            또 남 핑계네. 너가 잘만 했어봐. 단골들이 다른 곳으로 빠졌겠니?  
                  넌 어렸을 때부터 원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 뭐가 잘못되면  
                  남한테 매달리거나 하고. 지금도 봐. 올케가 입원하니깐 나한테  
                  연락해서 매달리고.

고모의 비난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중만.

중만            그럼 이제부터 누나한테 아무 부탁하지 않을게.  
고모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그러니? 그럼 혼자서 애써보던가.

획-하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고모.

## 42. 중만의 집 안, 현관. D

낡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중만.  
고모는 옷을 챙겨 나가다가,

고모           (문득) 아. 맞다. 이건 비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지연이한테 돈 빌려줬다.  
중만           개가 누나한테 돈을 빌려? 얼마나?  
누나           백만원. 부모가 얼마나 못 미더웠으면, 생전 연락 안하던 나한테  
                  부탁 했을까.

우쭈대는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고모.  
꽁! 현관문 닫히는 소리.  
tv를 보던 순자가 중만을 스윽- 쳐다보며,

순자           그 년 언제 돌아온대?  
중만           그 년이라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순자           그 년이 날 계단에서 떨어뜨렸단 말야.  
중만           떨어진 건 어머니가 아니라 집 사람이잖아요..  
순자           너가 안 봐서 몰라. 위험천만했다고.  
중만           ...

중만, 더 말하려다가 참고는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간다.

## 43. 중만의 집. D

방안에 깔린 이부자리에 벌러덩 눕는 중만.  
오늘 하루가 고되었는지, 뉘 놓고 천장을 바라본다.  
그러다 순간, 보스턴백을 떠올리는...

빗소리가 선행 되고...

## 44. 나비 BAR 앞. D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골목 구석진 ‘나비’ BAR 앞에 세워져 있는 진태의 차.  
이 때, 차장 너머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산을 펼쳐들고 나오는 것이 보인다.  
긴장된 표정으로 핸들을 움켜쥐는 진태...

## 45. 미란의 집, 거실- 진태의 차 (교차). N

불안한지 거실을 서성이는 미란,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데, 연락 온 게 없다.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그 때, 들리는 휴대폰 진동소리. 뛰어가서 발신자를 확인하면 '가게'다.

미란, 전화를 받으면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소리(E)            요즘 왜 안 나오나 해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미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소리(E)            그래? 많이 안 좋은 거야?  
미란                아니요. 감기가 조금 있어서...  
소리(E)            그럼 다행이고. 아, 조만간 사장님이 연락할 거야. 한 번 통화하고  
                      싶다 하더라고. 이상하게 사장님이 자길 챙기네. 둘이 뭐가 있었어?  
미란                아뇨. 그런 거 없는데...  
소리(E)            뭐, 알았어. 그럼 몸 좀 나아지면 보자구.  
미란                네...

전화를 끊는 미란. 심란해 보인다.

그 순간, 다시 울리는 미란의 휴대폰. 이번엔 '울릉도'... 진태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는 미란.

미란                여보세요?

휴대폰 너머로, 진태의 흥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진태(E)            해치웠어! 내가 해치웠다고! 정말로 끝내버렸어.

마치 얼어붙은 듯 한 미란의 모습. (전화장면 교차)

진태                듣고 있어?  
미란                ... 듣고 있어.  
진태                (흥분) 죽었어. 당신 남편 죽었다고.  
미란                들리니까, 목소리 좀 낮춰.  
진태                괜찮아. 차 안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  
미란                지금 어딘데?  
진태                부용산에서 가는 길이야.  
미란                부용산? 부용산은 왜?  
진태                거기다가 시체를 묻었거든.  
미란                (황당) 묻다니....?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어?  
진태                상황이 좀 변했어. 자세한 얘긴 만나서 해. 배터리가 곧 나갈 것

미란                    같아.  
                          어? 잠깐만...

전화가 툭- 끊긴다.  
황당한 표정을 짓는 미란.

Cut to;

휴대 폰으로 ‘실종 사망보험금’을 검색하는 미란.

미란                    (내용을 읽으며) 부재자의 생사가 칠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실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상을 찌푸리며) 칠년? 아~씨. 칠년을 어떻게 기다려...  
(짜증 섞인) 이 등신은 왜 계획대로 안 한거야.

그런데, 이 때...  
현관에서 비밀번호 눌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뭐지?  
곧 이어 문이 열리고, 신발을 벗고, 저벅저벅- 집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

헉!!!  
남편이다!!

술에 취한 남편은 자신을 귀신 보듯이 보는 미란을 향해,

남편                    뭐야? 그 표정은?

인상을 구기며 안방으로 향하는 남편.  
미란은 허깨비를 본 건 아닌 지 고개를 흔들어본다. 하지만, 현실이다.  
이 때,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

남편(E)                야! 뭐해? 물 가져 와!

Cut to;

시계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다.  
미란은 진태에게 전화를 계속 걸어 보지만, 꺼져있다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이는 미란.  
그 순간, 적막을 일깨우는 초인종 소리. 땡땡-!  
깜짝 놀란 미란은 남편이 초인종 소리에 깰까봐 조심히 안방 문을 열어본다.  
다행히 술 취해 뺨어 잠들어있는 남편...

## 46. 미란의 집, 현관 앞. N

미란이 현관문을 열면, 잔뜩 상기된 진태가 서있다. 흠투성이에 꼬이지해 보인다.

진태 (손을 번쩍 들며) 내가 해냈어.

손에 쥔 안개 꽃다발을 미란에게 건네는 진태.

진태 이거- 축하선물! 더 화려한 걸 사주고 싶었는데. 웬 만한 꽃집은 다 문을 닫았더라고.

미란 (진태의 입을 막으며) 쏙! 조용히 해! (손목을 잡고는) 이리 와.

미란은 급히 진태를 복도로 끌고 나간다.

## 47. 아파트 주차장, 진태의 차 안. N

유리창을 두들기는 빗방울 소리가 들리고...

진태가 입을 찹- 벌리고 미란을 쳐다보고 있다.

진태 뽕... 뽕치는 거지?

미란 (답답) 내가 뭣 땀에 니 한테 뽕을 쳐.

진태 (당황) 그... 그럼 난 누... 누굴 죽인거야?

미란 (답답)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궁금한 건 나야. 너 대체 누굴 죽인거야?!

진태 분명, 누나 남편이었는데...

미란 (답답) 다른 사람이라고.... 니가 죽였다는 내 남편은 지금 (집을 가리키며) 저 위에서 코 골며 자고 있다고. 못 믿겠으면 네 눈으로 가서 보고 오던가!!

금붕어처럼 입만 빠끔 거리는 진태.

미란 제대로 확인 한 거 맞아?!

진태 (낮이 나간) ... 응... 당연히...

미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사람 얼굴 알잖아?

진태 (더듬거리며) 으...응. 사.. 사진을 봤는데.... 좀 오래된 사진이라 착각했나...? 길.. 길도 어두웠고...비도 오고... (괴로워하며) 아~ 분명...그 사람이었는데!!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진태.

미란 (한숨) 그리고,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바꾼거야??  
진태 그.. 그게, 차로 쳤는데, 떠나려고 보니깐 살아 있더라고.  
미란 (화들짝) 뭐, 살아있었다고?!  
진태 응. 그래서 누가 볼까봐 일단 차에 실고 달렸어.  
미란 그럼 산 채로 묻은 거야?  
진태 ... 반은 죽은 상태였지...

어안이 병병한 미란.

진태는 운전대에 자포자기 한 듯 엎드린다.

미란 보... 본 사람은? 없었어?  
진태 ... 그랬던 것 같아.  
미란 (한숨) 그랬던 것 같으면 어떻게...

갑자기 고개를 획- 쳐든 진태, 미란을 애절하게 쳐다본다.

진태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미란 (쌀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진태 이러기야? 나 엄한 사람을 죽였던 말야.  
미란 누가 그러라 했어? 니한테 다 맡겨두라며!!

말문이 막힌 진태, 괴로운지 다시 운전대에 와락- 엎드린다.

미란은 대시 보드에 놓인 꽃다발이 눈에 들어온다.

인상을 찌푸리다가 깊은 한 숨을 내쉬고는....

미란 일단, 넌 이 차부터 빨리 버려.  
진태 (고개를 들고 미란을 쳐다본다.)  
미란 그리고 나선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 한동안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잊혀질 거야.  
진태 잊혀진다... 그게 가능해?  
미란 그럼 그것 말고 방법 있어? 너 붙잡히고 싶어?! 너 설마 감옥 가고 싶은 거야?!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어!  
진태 아...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럼... 누날 못 보잖아.

순간, 정적.

미란은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냐는 마음이지만 애써 넘기며,



미란 ... 내가 여기 정리되면 너 고향으로 갈게.  
 진태 그럼, 지금 바로 떠나자.  
 미란 그게 말이 돼? 그냥 빈손으로 여길 떠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거기서 살 돈은 마련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마련해서 갈 테니깐,  
 일단 너 먼저 가있어.

반신반의 하는 진태.  
 그러자, 미란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는,

미란 날 봐. 날 믿어야 해. 이제 우리 둘 뿐이야.  
 진태 (끄덕)  
 미란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평생! 알겠지?

진태, 눈만 껌벅껌벅.

미란 (버럭) 알았냐고!!  
 진태 아... 알았어.  
 미란 그래. 너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미란은 진태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면, 마음을 굳게 먹은 듯 보이는 진태.

## 48. 아파트 입구 앞. N

미란이 아파트 입구 앞에서 우산을 접으려고 하는데, 우산이 망가졌는지 접히지가 않는다.  
 순간 짜증이 훅- 올라온 미란, 우산을 바닥에 마구 내려치며,

미란 병신새끼. 병신새끼!

경비원이 황당한 얼굴로 미란을 쳐다본다.

## 49. 미란의 집, 거실. N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미란.  
 그런데, 헉!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남편 (다정하게) 왔어?  
 미란 (당황) 어?  
 남편 (쳐다보며) 누구야?

미란 (당황) 어?  
 남편 우리 집에 온 남자 누구냐고...  
 미란 어... 아..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오늘 갑자기 출근 못해서 일 좀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남편 그 사람은 전화도 없대? 이 시간에 집을 찾아오게.  
 미란 어...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랬대.  
 남편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주소는 안다...  
 미란 (움찔) 직... 직원 명부에 주소가 써 있거든.  
 남편 아~ 너희 직원들은 근무 바뀌달라고 할 때 꽃다발을 들고 오나보지?  
 어떤 회산지 몰라도 아주 낭만적이네.  
 미란 (당황) 그.... 그건.

남편, ㅋㅋㅋ 하고 웃다가 일어서더니 미란에게 다가온다.

남편 이 미친년이 누굴 병신 삼발이로 보나. (가까이 다가가며) 이젠 하다하다 서방질까지 하나?  
 미란 (뒤로 물러서며) 그.... 그런 거 아니야...  
 남편 (다가가며) 그럼 뭔데?  
 미란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남편 아~ 그 동료랑 바람이 났다 이거지. 잉?  
 미란 아.. 아니야... 진짜..

퍽! 남편의 주먹이 미란의 얼굴을 가격한다.

미란 악!!!

비명 소리를 내며 주저앉는 미란.

남편 집 날려먹고, 빗까지 지게 만들더니... 다음은 남자냐? 넌 진짜 어떻게 돼먹은 년이냐.

미란의 머리를 쥐고는 옷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남편.

## 50. 미란의 집, 옷방. N

벽에 미란의 얼굴을 쳐 박는 남편.

미란의 코에서 흘러내린 코피가 바닥과 티셔츠를 점점이 얼룩으로 만든다.

남편 그 새끼랑 잤냐? 좋았어? 나랑 할 땐 시들시들하더라, 직장동료랑 붙어먹으니깐 좋았냐구?! 말해봐! 이 미친년아!

피를 닦는 미란, 해볼 테면 해보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다가, 킁킁- 웃기 시작한다.

남편            이 년이 진짜 미쳤나?  
미란            직장동료 아니야. 그냥 손님이지.  
남편            뭐? 손님? 그게 무슨 말이야?  
미란            ...  
남편            (버럭) 그게 무슨 소리냐고!  
미란            도우미 할 때 만난 손님이라고.  
남편            도우미?  
미란            그래. 나 노래방 도우미 나가. 왜 불만있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어찌겠어?  
남편            이 미친년이...  
미란            네가 먹는 아침, 맥주... 전부 다 남자들이 내 허벅지 만진 돈으로 산거야.

부들부들 떠는 남편.

미란            어쨌래? 이런다고 이혼해 줄 것도 아니잖아.  
남편            (얼굴을 구기며) 이 걸레 같은 년이... 진짜 너 죽고 싶구나?!  
미란            그래. 죽여. 죽는 게 이렇게 사는 것 보단 나으니깐!

퍽!퍽!퍽! 발로 미란을 계속 걷어차는 남편.  
미란, 의식을 점점 잃어간다.

## 51. 중만의 집, 안방-거실/ 스크린 골프 연습장 (교차). D

눈을 번쩍 뜨는 중만.

Cut to;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보는데, 순자가 늘 앉아 있던 낡은 의자는 비어있다.  
방안을 살펴봐도 순자는 보이지 않는다.

중만            아... 젠장.

Cut to;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있는 지배인과 통화를 하는 중만. (교차)

지배인           (짜증)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중만            정말 죄송한데, 오늘 근무를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배인           그게 말이 되요? 이 시간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중만            다른 알바생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될까요?  
 지배인           (짜증) 아 나 진짜. 일 할 사람을 지금 당장 어떻게 구하라는거야?!  
 중만            죄... 죄송합니다.  
 지배인           (한숨) 뭐, 이제 됐어요.  
 중만            아, 쉬어도 괜찮겠습니까?  
 지배인           아니.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중만            네?  
 지배인           못 들었어? 해고라고요.  
 중만            하... 지배인님.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서....  
 지배인           아, 진짜 몇 번을 말해. 사정없는 사람이 어딴냐구. 오늘부터 나오  
                   지마요. 그동안 일한 건 일당 쳐서 넣어 줄 테니깐.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지배인.

전화기를 쥐고 부들부들 떠는 중만. 순간, 보스턴백이 떠오른다.

중만            아... 씨

그 순간, 중만한테 전화가 온다.

중만            (전화를 받고는)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 52. 횃집 안. D

횃집으로 들어오는 중만.

횃집사장       어서 오세요.  
 중만            저...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  
 횃집사장       아, (구석을 가리키며) 계속 종업원들한테 일을 시키셔서 안쪽  
                   으로 모셨어요.

중만, 횃집 안쪽을 둘러다보면, 순자가 구석에 혼자 앉아있다.

중만, 한숨을 쉬고 순자에게 다가가면, 멍하니 앉아있는 순자.

중만            어머니... 일어나시죠.

순자, 중만을 쳐다보더니,

순자            못난 놈. 지금이 몇 시냐? 사장이 이렇게 게을러 터졌으니까, 종  
                  업원들도 저렇게 느려터진 거 아냐?

순자의 꾸짖음에 종업원들 황당해하는 표정들이다.  
민망해하는 중만.

중만            빨리 일어나세요. 여긴 우리가게가 아녜요. 우리가겐 망한지  
                  오래 됐다고요.

순자            그년이 넘긴거야. 그년은 옛날부터 우리 집이랑 가게를 탐냈어.

중만, 순간 울컥해서는,

중만            그냥 절 탓하세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다 망친 거라고요!!

순자, 아랑곳 하지 않고,

순자            년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조심해. 그년은 분명  
                  우릴 죽일 거야. 이제는 겁나서 마음 놓고 잠도 못 잘 것 같아.

중만            (순간 버럭) 제발!! 제발... 그만 하세요. 제발...

중만, 눈물을 흘린다.

## 53. 호텔 사우나, 실내로비. N

밤 바다가 보이는 평택호텔 전경.

새로 뽑은 청년 알바생이 사우나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때, 로비 안을 슬쩍- 들여다보는 중만.

중만            (알바생에게) 저기, 여기 전에 일하던 사람인데.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어. 지배인은...?

뉴알바생        (시큰둥하게) 아직 안 나오셨어요.

중만            아, 그래? 인사 좀 하려고 했더니만... 알았어. 수고해.

중만, 서둘러 분실물 보관실로 향한다.

## 54. 호텔 사우나, 분실물보관실. D

분실물 보관실 전등이 들어오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중만.

물끄러미 한 참을 보스턴백을 쳐다보다가, 결심한 듯 보스턴백을 챙겨 가지고 나온다.

## 55. 호텔 사우나, 실외로비. D

사무실에서 나오는 중만.

그런데 그 때,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지배인과 맞닥뜨린다.

지배인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중만	아, 제 물건들이 있어서 챙기러 왔어요.
지배인	(보스턴백을 보더니) 그렇게 물건들이 많아요?
중만	아... 책들을 좀 갖다 두었거든요.
지배인	아이고. 그동안 책 보러 다니신 거였구나. 그러니깐,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는 댓글들이 달리지.

빈정거리며 사우나 안쪽으로 이동하는 지배인.

중만이 무시하며 발길을 옮기려 하는 순간, 지배인이 돌아보더니,

지배인	저, 잠시만요.
중만	(흠칫) 네?
지배인	(가방을 가리키며) 그 가방 좀 확인해 봅시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깐.
중만	혹시 몰라서라뇨?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배인	의심이고 뭐고, 그게 규칙이에요.
중만	애기했잖아요, 책이라고.
지배인	최중만씨. 뭐, 켜기는 거 있어요?
중만	(성내며) 뭘 켜겨요? 그런 거 없어요.
지배인	그럼 보여 달라니깐.
중만	싫다고요. 내가 그럴 이유 없잖아요.
지배인	(다가오며) 아니, 내가 보여 달라고 하잖아.
중만	(발끈하며) 야. 내가 아직도 니 직원인 줄 알아? 어따 대고 반말이야? 어린놈의 새끼가 보자보자 하니깐. 감투 쓰고 있으니깐 뵈는 게 없냐?

지배인, 잠시 말문을 잃다가, 가방을 집는다.

중만	(가방을 재끼며) 봐, 어디서 도둑취급이야! 정 보고 싶으면 경찰
----	--------------------------------------

부르튼가!

소란스러워지는 사우나 로비.

이 때, 조폭으로 보이는 손님이 인상을 팍-쓰며,

손님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이~ 지배인, 잠깐 이리 좀 와봐.

지배인,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손님한테 간다.

이 틈을 타서 사우나를 빠져 나가는 중만.

## 56. 중만의 집, 안방. D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중만이 들어와 커튼을 치고는 바닥에 앉아 보스턴백을 연다.

Cut to;

신사임당이 그려진 돈다발을 줄지어 세어놓는 중만.

중만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십 억...

긴 숨을 토해내고는 보스턴백에 다시 돈다발을 집어넣는다.

장롱 위 상자를 꺼내어 그 곳에 보스턴백을 밀어 넣는다.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보는 중만.

상자엔 회칼 세트가 들어있다.

회칼 하나를 꺼내 들여다보는 중만. 아직 쓸 만해 보인다.

상자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진 찍은 액자도 들어있다.

중만                    (혼잣말로)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게요.

## 57. 제과공장 안. D

쏟아지는 공정품들 사이에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마스크를 쓴 미란, 폭력의 후유증 때문인지 동작이 굼뜨다. 이를 놓칠 리 없는 관리자가 미란에게 다가오더니,

관리자                    어이! 아줌마! 자꾸 뺑이 부릴 거야?!

미란                    .....

관리자                    내가 이래서 나이 먹은 여잘 쓰지 않으려는 거야. 동작이 이렇게 굼뜨서 어디 남편 사랑 받겠어?!

관리자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스크를 획 벗어 던지는 미란.  
잔뜩 멍이 든 미란의 얼굴을 보고 놀란 관리자와 종업원들.

미란                    그래 이 개새끼야. 남편한테 사랑 줄라게 받는다. 너도 내가  
어디 사랑해 줄까? 이 좃만한 새끼야!

작업모자를 집어던지고 성큼성큼 탈의실로 향하는 미란.  
꺾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멍하니 미란을 쳐다보는 관리자.

관리자                (주위를 살피더니) 뭐... 뭐해 일들 안하고...

## 58. 기차 플랫폼. D

젓빛 하늘 아래, 기차 플랫폼이 길게 뻗어 있다.  
얼굴을 그대로 까발린 채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는 미란, 멍하니 선로를 바라본다.  
행인들은 미란을 흘깃 보고 움찔하며 지나간다.  
이 때, 미란한테 걸려오는 전화. 노래주점이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애써 받는 미란... 수화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여자(E)            여보세요? 미란씨?  
미란                (죽어가는 목소리로) 네. 사장님.  
여자(E)            몸이 안 좋다 들었는데, 아직도 몸이 안 좋은 거야?  
미란                .....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 미란, 오열 한다.

여자(E)            ... 미란씨 울어?

승강장을 지나던 사람들, 당혹스런 시선으로 오열하는 미란을 쳐다본다.

## 59. 노래주점, 룸. D

환하게 불이 켜진 단체 룸에 마스크를 쓴 미란이 홀로 앉아 있다.  
잠시 후, 룸으로 들어와 미란의 건너편에 앉는 하얀 정장에 숏커트 한 40대 여자.

숏커트



명품 백에서 고급스런 담배케이스를 꺼낸 쏿커트.

담배 한 모금을 빨더니 미란에게 건넨다.

미란이 고개를 젖자, 쏿커트는 담배를 길게 빨고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쏘커트            마스크 벗어봐.

마스크를 벗는 미란.

쏘커트            남편한테 맞은 거야?

미란                ... (끄덕)

쏘커트            여기서 일하는 것 땀에?

미란                ...

쏘커트            신고는 했어?

미란                (절래)

쏘커트            도움 받을 곳은 있고?

미란                아니요...

쏘커트            친정은?

미란                둘 다 돌아가셨어요.

쏘커트            (연기를 뿜고는) 불쌍한 년.

명품 백에서 돈 봉투를 꺼내는 쏿커트, 테이블 위에 봉투를 툭- 던진다.

쏘커트            얼마 안 되지만,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같은 데 다녀와. 기분 전환은 될 거야.

미란                괜... 괜찮아요.

쏘커트            그냥 받아둬. 이미 죽었지만 내 전 남편도 날 그렇게 만들었었어. 자기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

미란                ...

쏘커트            자기야.

미란, 쏿커트를 쳐다보면,

쏘커트            이 세상이 지옥 같지? 그래 맞아. 올라가려고 줄라 발버둥 치면 오히려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이 세상이야... 나도 왜 그럴까 수 없이 생각해 봤어. 근데, 소용없더라고. 그냥 이 세상은 참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던 거야.

미란                ....

쏘커트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설사 그렇다 해도 남한테 잡아먹히면 안 돼.

미란                ...

쏘커트            상어 중에 샌드타이거라는 상어가 있어. 이 상어는 임신하면 몸

속에 오십여마리 정도 알을 품는데, 출산기가 되면 어미 자궁에서 새끼 상어들이 깨어나. 놀라운 건, 이놈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형제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마리만 살아남아서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되는 거지.

미란 ...

숏컷,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미란의 손을 잡더니...

숏컷 무슨 일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미란 ... 네..

## 60. 다세대 주택 골목. D

다세대 주택 골목.

휴대 폰 문자에 적힌 주소를 보며 서성이는 미란.

미란 (혼잣말로) 요. 근처데...

그 순간, 길가에 세워진 진태의 차를 발견하고는 짜증이 훅- 올라온다.  
진태의 차가 세워진 다세대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미란.

## 61. 연립주택, 복도. D

반 지하 계단을 내려온 미란, 초인종을 누른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쿵쿵-문을 두들기는 미란.

미란 나야. 문 열어줘.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문을 두들기는데... 그 순간, 철컹- 문이 열린다.  
그 앞에 병자 같은 얼굴로 서있는 진태.

미란 (놀라며) 뭐야?! 왜 그래?

## 62. 진태의 집 안. D

컵라면 용기, 빈 소주병 등으로 지저분한 반지하 단칸방.

미란은 쓰레기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진태는 벽에 바짝 붙어 앉더니, 미동도 하지 않고 병자처럼 몸을 감싸고 있다.

미란            왜 그래? 애기 좀 해봐!  
진태            몸 상태가 좀...  
미란            ... 감기 걸린거야?  
진태            (절레절래)  
미란            ... 밥은 먹었어?  
진태            (절레절래)  
미란            뭐 좀 만들어줄까?  
진태            됐어. 먹기 싫어.  
미란            ... (한숨)

미란은 진태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진태의 빼죽 솟은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미란            불안하지?  
진태            ...  
미란            나도 그래. 그래도 이 시간만 잘 넘기면, 아무 일 없이 끝날 수  
                 있어. 고향 가는 배표는 알아봤어?  
진태            나 그날부터 잠을 못자.  
미란            그러니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진태            (버럭) 나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고!!!

진태의 큰 소리에 깜짝 놀란 미란.

미란            (목소리를 낮추며) 미쳤어? 동네방네 살인자라고 떠들고 싶어?  
진태            (부들부들 떨며) 들려.  
미란            뭐가?  
진태            그 사람 말야. 내가 죽인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미란            (한숨)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소름끼쳐.  
진태            진짜란 말야. 차 안에서 공공 앓던 소리가 지금도 들려. 분명 그  
                 사람 영혼이 내게 들러붙은 거야.  
미란            기분 탓이야.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진태.

진태            으악!! 나 미쳐 버릴 것 같아!!  
미란            (진태를 말리며) 정신 차려!! 배고파서 헛것이 들리는 걸 수 있어.  
                 빨리 밥부터 먹자.  
진태            으악!!!

진태는 힘을 꺾 주어 자신의 귀를 막는다.

진태                    들려. 들린다고!!

미란은 그 모습에 열 받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는, 광분하는 진태를 그냥 안아 버린다.  
그러자,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진태.

미란                    (토닥토닥) 진정해. 내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괜찮아. 빨리 우리  
떠나자. 그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 하는거야.

미란을 뵈히 쳐다보는 진태, 미란을 밀어내며..

진태                    안 되겠어. 나 자수할래.  
미란                    뭐?! 자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태                    (일어서며) 나 결심했어. 지금 경찰서에 갈 거야.  
미란                    뭘 결심? 야! 이게 어디 너 혼자 문젠 줄 알아?  
진태                    누나에 대해선 말하지 않을게. 경찰에 잘 말 할 테니깐 걱정마.  
미란                    (한숨) 그 말이 아니잖아. 너 사람 죽이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못나와.  
진태                    그... 그 정돈 각오했어.  
미란                    강패들이랑 같은 방에서 지내고.... 엄청 맞을 수도 있어. 게다가 너  
같은 애는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을 걸?  
진태                    ... (겁먹은, 다시 앉는다)  
미란                    (긴 숨을 내쉬고) 자, 이렇게 하자. 우리 둘이서, 죽은 남자 제사를  
지내주는 거야. 그러면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  
진태                    제... 제사?  
미란                    그래. 제사. 억울하게 죽었으니깐, 우리가 명복을 빌어주자는 거지.

미란의 얘기에 흔들리는 듯 보이는 진태.

미란                    (부드럽게) 그러자~ 응?  
진태                    ...

## 63. 꽃 집 앞. D

꽃집에서 국화꽃을 사는 미란,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진태를 흘깃- 보더니... 미소를 지어준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혼잣말로,

미란                    하아~ 저 정신병자 새끼 땀에 내가 진짜 별짓을 다하네...

## 64. 부용산, 임도. N

부용산을 가리키는 표시판이 보이고, 어느 덧, 해는 저물어 산속엔 어둠이 잠긴다.  
구불구불 구부러진 산길을 달리는 진태의 소나타.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자, 진태가 차 두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진태                여... 여기에 차를 대야 해.  
미란                어.. 그래.

진태가 지목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는 미란.

## 65. 부용산, 좁은 길. N

손전등을 켜고 산길을 오르는 미란과 진태.  
미란이 힘겨워 할 때쯤, 진태가 발걸음을 멈춘다.

미란                (가쁜 숨을 내쉬며) 왜 그래?  
진태                (한 곳을 가리키며) 저기야.

진태가 지목한 곳은 주변에 비해 풀이 없다.

Cut to;

시체를 묻은 곳에 제사상을 차리는 미란.  
미란과 진태는 나란히 서서 절을 두 번 하고 묵념까지 마친다.

미란                자, 이제 돌아가신 분도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미란이 진태를 쳐다보면, 진태는 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듯 보인다.

미란                이제 좀 괜찮아?  
진태                응... 한결 나아졌어.  
미란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제 내려가자.  
진태                (끄덕)

## 66. 부용산, 공터. N

차에 올라타려는 미란... 그런데, 진태의 표정이 또 다시 좋지 않다.

미란                왜 그래? 또?

다시 귀에 손을 대는 진태.

진태                (괴로워 하며) 아아. 소용없어. 계속 들려.

미란, 속안에서 터져 나오는 뻥침을 애써 참으며...

미란                뭐야. 그럼 무당이라도 부를까?

진태                정말 계속 들려.

미란                남자가 허약해 빠져가지고.

진태                이게 다 누나가 남편 죽여 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거잖아.

미란                (발끈) 부탁해? 뭘 소리야? 네가 멋대로 저지른 거잖아!

정적...

진태                멋대로라...

미란                그래, 네가 멋대로 열 내서 죽인다 한 거잖아. 그러다 멍청하게  
상관없는 사람을 죽인 거고. 너 땀에 지금 나까지 말려들어서  
얼마나 골 아픈 줄 알아?!!

진태는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다가, 차에 타지 않고 산길을 내려간다.

미란                어디가?!

진태                경찰서.

뚜벅 뚜벅- 산길을 내려가는 진태.

미란                야!!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는 진태.

어느 새 모습이 사라진다.

미란                (몸서리를 치며) 하~ 진짜 미쳐버리겠네!!

## 67. 부용산 임도. N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는 진태.

이 때, 흠을 끄는 타이어 소리가 들린다.  
진태가 뒤를 돌아보면,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집어 삼켜 버린다.

## 68. 도로, 진태의 차안. D

새벽녘. 온 몸이 흠투성이에 뒹 나간 얼굴로 운전하는 미란.  
자신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는 차량의 클락션 소리에 핸들을 돌린다.  
갓길에 차를 세운 미란. 핸들에 머리를 파묻고 거친 숨을 몰아쉰다.

미란                    하악~ 하악~~

순간, 무엇인가 떠올랐는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를 건다.

숏컷트(E)            (잠이 들깸 목소리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란                    ....

숏컷트(E)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미란                    악~~~~~!!!!!!!

찢어질듯 악을 지르는 미란.  
그리고 적막...

숏컷트(E)            진정해. 심호흡 좀 해봐. 길게 숨 들이마시고 내뿜는 거야.  
빨리!

숏컷트가 시키는 대로 하는 미란.

미란                    후우~ 후우~

숏컷트(E)            다시 한 번.

미란                    후우~ 후우~

심호흡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미란.

숏컷트(E)            자, 이제 얘기해봐.

미란이 그래도 답을 하지 않자,

숏컷트(E)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야? (답이 없자 다그치며) 어디냐고?!

미란                    ... 부용산 근처예요.

숏컷트(E)            부용산? 알았어. 나한테 현재 위치 문자에 찍고 기다려.

미란                    네...

전화를 끊고는 핸들에 고개를 파묻는 미란.

## 69. 슈퍼 앞, 주차장. D

도로 가 슈퍼 앞에 세워져 있는 진태의 소나타.  
잠시 뒤, 하얀색 벤츠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쏿커트가 내린다.

## 70. 슈퍼 앞, 진태의 차 안. D

차 안을 살펴보는 쏿커트.  
뒷좌석엔 샵이 놓여있고, 흡투성이가 된 미란의 행색이 눈에 들어온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는 쏿커트.

쏘커트            이 찬 뭐야? 자기 차야?

고개를 젖는 미란.  
쏘커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쏘커트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봐.

얘기하기를 주저하던 미란, 갑자기 훌쩍거린다.  
마치 과거 진태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쏘커트            이것만 기억해... 어떤 애길 해도 난 네 편이야. 믿어도 된  
다고. 운다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계속 훌쩍거리는 미란.

쏘커트            계속 울기만 할 거면 난 그냥 갈게.

차에서 내리려는 쏿커트. 그제야 미란이 말문을 연다.

미란            죽었어요.

잠시 적막.

쏘커트            ...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어차피 죽어도 썩 놔이었어.



미란 남편이 아니에요.  
숏컷 (놀라며) 뭐? 그럼 누구?

Cut to;

침묵이 감도는 차 안.  
미란, 지난 일들을 다 털어놓은 얼굴이다.

숏컷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미란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장님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숏컷을 쳐다보며) 저... 이제  
어떻게 하죠...?

미란은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기댔던 진태의 모습 같다.

숏컷 ... 그 죽은 애... 가족이랑 연락 끊고 산다 했지?  
미란 ... 네.  
숏컷 그렇담 찾을 사람은 없다는 거고... 시체는 확실히 잘 묻은 거지?  
미란 네.  
숏컷 좋아 그럼. 이 차 몰고 날 따라와. 그리고 이제부터 사장님이라 하지  
말고 언니라 불러.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는 미란.

## 71. 항구 앞, 중고차 가게. D

항구가 보이는 중고차 가게.  
숏컷가 벤츠차에서 내리더니, 중국사장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눈다. 매우 능숙해 보인다.  
잠시 후, 숏컷는 거래가 성사 되었는지 중국사장으로부터 5만원권 몇 장을 받고는, 미란  
에게 다가와서,

숏컷 내려.  
미란 네?  
숏컷 (돈을 건네며) 그 차 팔렸어. 얼마 받진 못했지만  
미란 (돈을 받으며) 근데, 이 차는...  
숏컷 걱정할 것 없어. 어차피 재들도 해외로 가져 갈 거야. 재네들 걸  
오른 중고차 딜러인 척하지만, 본업은 차량 절도단이야.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 못해.  
미란 ...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숏컷 은혜는 무슨... 빨리 타.

췏커트가 벤츠 운전석에 타면, 미란은 진태의 차에서 내려, 벤츠 조수석에 올라탄다.

## 72. 도로, 췏커트의 차 안. D

운전하는 췏커트. 조수석에 타 있는 미란.

췏커트	좋아했어?
미란	네? 누구요?
췏커트	자기가 묻은 남자.
미란	아... 아니요.
췏커트	그럼. 오늘 밤 있었던 일은 이렇게 생각해. 날 따라다니는 스토키 하나 처리한 거라고. 나는 나쁘지 않다고.
미란	....
췏커트	폭력남편에 스토키라. 너도 참 남자 복 지지리도 없다. 뭐, 나도 남 말할 처진 아니지만.

췏커트, 미란을 쳐다보면, 흙투성이에 꼬이지해 보인다.

췏커트	일단 좀 씻자.
-----	----------

## 73. 사우나 안. D

사우나 욕탕에 들어가 있는 미란과 췏커트.

욕탕에는 미란과 췏커트, 둘 뿐이다.

췏커트	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했지?
미란	(끄덕)
췏커트	나도 마찬가지야. 나 어릴 적에 아빠가 북경에서 사업하신다 해서 북경에서 몇 년 살았어... 처음엔 사업이 나를 잘 되었는데, 나중에 동업하던 친구한테 사기 맞아서 췏딱 망했지. 아빠... 아니 그 병신 새끼는 그 후로 술만 쳐먹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랑 엄마랑 같이 동반자살 하려고 했지. 다행히 난 거기서 살아남았지만....
미란	...
췏커트	그 후로 한국에 와서 큰 아빠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큰 아빠라는 새끼가 날 건드리더라구.
미란	...
췏커트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집을 나와 버렸어. 그리고 스물두살 때

결혼 해버렸지. 남편은 나랑은 스무 살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날 좋아했고, 뭐 중요한 건 돈이 많았어... 그런데 결혼하더니, 달라  
 지더라고. 돈 한 톨 못쓰게 하고, 틈만 나면 주먹질을 해댔어.  
 미란 듣고 보니, 저랑 비슷한 게 많네요.  
 쏿커트 나도 너 얘기 들었을 때, 어쩔 나랑 이렇게 닮았나 싶더라고.

서로를 보는 쏿커트와 미란.  
 쏿커트, 말을 이어간다.

쏘커트 근데, 결혼하고 오년 쯤 되었나? 남편이 욕실에서 익사해 버렸어.  
 술을 엄청 쳐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 확 가버린 거지... 행운이란  
 건 늘 남한테만 찾아가는 거라 생각 했었는데, 나한테도 오더라고...  
 남편 죽고 나니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유산과 보험금을 에누리  
 없이 받아냈거든. 그 돈으로 지금 사장님 소리 듣는 거고...  
 미란 ...  
 쏿커트 자기, 그거 알아? 우리나라 자살자 부검률이 사퍼센트 밖에 안 되  
 는거.  
 미란 부검률요?  
 쏿커트 자살했다고 추정되는 사람 백 명 중에 구십 사개의 시체는 제대로  
 된 조사도 못 받고 화장된다는 거야.  
 미란 물랐어요.  
 쏿커트 내 남편도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였지만 부검은 역시 안 했어.

욕탕에서 몸을 빼고 나오는 쏿커트.  
 미란은 쏿커트의 허벅지에 새겨진 잉어문신이 눈에 들어온다.

쏘커트 (미란의 시선을 느끼고는) 아, 이거... 행운의 부적이야. 나 이래  
 뵈도, 예전에 타투 아티스트였거든. 남편죽고 나서 사는 방식을  
 바꾸기로 맘먹으니깐, 웬지 그 기분을 남기고 싶더라고.  
 미란 ...  
 쏿커트 너도 한 번 해볼래?  
 미란 ...

대답 않는 미란을 보고 피식- 웃는 쏿커트,  
 자리를 피하려다가 문득 무엇인가 떠오른 듯,

쏘커트 아, 남편 생명보험은 들었어?  
 미란 네?  
 쏿커트 보험 말이야.  
 미란 네. 들었어요.  
 쏿커트 보험금은 얼마 쯤 돼?

미란            자.. 자세히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숏커트        오억은 넘어?

미란            ... 그.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숏커트        그래도 꽤 되네?

미란            예전에 여유가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때 일시금으로 넣었어요...

숏커트        그랬구나... (문득) 너 수진이라고 알지? 잠깐 우리가게에서 일했었는데.

미란            아. 카운터에서 일했던.... 알아요..

숏커트        개 왜 그만둔 줄 알아? 개 남편도 술만 마시는 개망나니였는데, 얼마 전에 자살했어. 개도 나처럼 보험금 받아서 지금 강남 한복판 커피숍 사장님 됐잖아.

미란            아. 그래요?

숏커트        한 번 마음먹기가 어렵지. 두 번 마음먹는 건 쉬워... 자긴 이미 한 번 마음 먹은 거 아녘어?

미소를 지어보이고는 사우나를 나가는 숏커트.  
미란, 생각에 잠긴다.

## 74. 경찰서 취조실, 문신실, 미란의 집 (교차). D

허벅지에 숏커트와 똑같은 잉어문신을 새기는 미란.  
(문신을 새기는 과정과 남편을 자살로 처리하는 과정이 교차되어 보여 진다.)

### 미란의 집

적막한 미란의 집 실내 풍경.  
카메라가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향하면,  
욕조에 잠든 듯이 죽어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인다.

숏커트(E)    알리바인 만들어 났으니깐, 전화하기 전에 감정을 고조시켜.  
                  일하고 왔더니 남편이 죽었다고. 보통은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아무 정신도 없을 거야.

119에 전화를 거는 미란의 모습.

미란            (울먹이며) 저.... 저기 남편이... 엠블란스를, 빨리 엠블란스 줘!!

### 경찰서 취조실

미러창이 있는 취조실에서 형사로부터 심문을 받는 미란.

미란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렵다보니,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 문신실

미란의 허벅지에 잉어문신을 새기는 걸 지켜보는 쏿커트의 모습.

쏿커트(E)    형사가 질문하면 가능한 솔직히 대답해. 작은 거짓말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법이니깐.

#### 경찰서 취조실

심문을 받는 미란의 모습.

미란            빗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극복하자고 했었는데...

#### 문신실

미란의 허벅지에 새겨지는 잉어문신.

쏿커트(E)    자살로 판단하는 건 네가 아니라 형사야. 넌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돕기만 하면 돼

#### 경찰서 취조실

심문을 받는 미란의 모습.

미란            잠이 안 온다면서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긴 했어요. 아,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고 했어요.

#### 문신실

쏿커트(E)    귀찮겠지만, 여러 번 조사를 받을 거야. 절대 정신을 놓치면 안 돼.  
                  너가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여자란 걸.

형사들이 바뀌어가며 미란을 취조하는 모습들이 보여 진다.

그리고 어느 덧, 미란의 잉어문신은 완성되어 있다.

## 75. 팬션 앞. D

한적한 곳에 위치한 팬션에 쏿커트의 벤츠가 들어선다.

차에서 내리는 쏿커트와 미란.

미란의 손에는 **골프용 명품 보스턴백**이 들려있다.

## 76. 팬션, 거실. D

집 안으로 들어서는 쏿커트와 미란.

쏘커트	오늘까지만 여기서 지내. 글구 내일 일본으로 잠시 나가있다가, 분위기 봐서 들어오도록 해. 돈은 현금으로 다 뽑았지?
미란	네... 근데 괜찮을까요?
쏘커트	걱정마. 평택항에 내 말 잘 듣는 놈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통하면 문제없이 나갈 수 있을 거야.
미란	감사해요.
쏘커트	(미소) 축하해. 새롭게 태어난 걸.
미란	다 언니 덕분 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표정이 굳어있는 미란.

그러자 쏿커트가 백에서 뭔가를 꺼내 미란에게 보여준다.

40대 안경 낀 뚱뚱한 남자의 실종전단지다. (#25에서 중만이 봤던 전단지)

미란	누구예요? 이 사람?
쏘커트	이 사람이 네 남편으로 착각당해 죽은 남자야.
미란	!!!
쏘커트	재밌는 게 뭘 줄 알아? 사람 구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람 성추행 범 전력이 있더라고. 폭력남편에 스토키, 그리고 성추행범까지... 넌 사회의 쓰레기를 셋이나 처리했어. 그러니깐 전혀 양심에 가 책을 받을 필요 없어.
미란	....
쏘커트	(미소) 자 그럼 자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념으로 축하주 한 잔 마실까?
미란	(끄덕)

Cut to;

샴페인 잔을 짚- 하는 쏿커트와 미란.

미란, 술을 한 모금 마신다.

췌커트            이제 좀 웃어. 그래도 돼.  
미란                ... 네

그제야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더 마시는 미란.  
그런데... 점점... 술에 취한 건지... 눈이 감긴다.

미란                (고개를 흔들며) 어... 왜 이러지..?

미란을 쳐다보는 췌커트.

췌커트            (걱정스런) 자기야, 왜 그래? ... 괜찮아?

점점, 췌커트의 얼굴이 흐릿해지면서... 암전.  
위잉- 날카로운 전기 톱날 소리가 선행되고...

## 77. 팬션, 주방. D

화면이 열리면, 전기 톱날 소리에 놀라서 번쩍 눈을 뜨는 미란.  
정신을 차리면 온몸이 결박되어 있고, 식탁 주변은 비닐이 겹겹이 깔려있다.

췌커트            어머, 깼어? 이상하네, 약이 좀 모자랐나?

미란의 시선에 고무장갑을 끼고 투명고글을 쓴 췌커트가 들어온다.  
미란은 소리를 내보려 애쓰지만, 입이 막혀서 소용이 없다.

췌커트            나를 잘 따랐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너무 나쁘게  
생각 하진마...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너도 돈 때문에 세 명이나  
죽었잖아.

발버둥을 치는 미란, 하지만 몸이 결박되어 있어서 소용이 없다.  
비닐을 잘 정리하는 췌커트. 비닐에 있는 머리카락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떼어내며,

췌커트            아, 그리고 사과할게 또 하나 있어. 나 사실은 좀 무서운 조직  
한테 쫓기고 있거든....(한숨) 아주 끈질긴 놈들이야. 지긋지긋  
해서 그냥 죽을까도 생각해 봤거든. 근데 이렇게 죽기엔 아직  
난 젊고 하고 싶은 일도 많더라구. 그래서 나 대신 네가 죽어  
줬으면 해. 너 말대로 우린 비슷한 게 많잖아?

미란의 볼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는 쏿커트.

미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쏿커트를 쳐다본다.

쏿커트            이제 네 이름은 내가 쓸거야. 넌 가족이 없으니까 팔다리만 이용  
                      하고 버리기 아깝거든.

쏿커트는 고글을 머리위로 올리고는, 미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쏿커트            늦은 감이 있긴한데,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중요한 비결 하나 더  
                      가르쳐줄게.... 남을 절대로 믿지 말 것. 왜냐 누구든 자신이 제일  
                      소중한 법이거든.

발버둥을 치는 미란.

쏿커트는 고글을 다시 쓰고 전기톱 전원을 켜다.

날카로운 웅--- 톱날 소리.

미란의 고글에 붉은 핏방울이 튄다. 암전.

## 78. 태영의 오피스텔, 주차장-복도. D

웅- 톱날소리와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모터소리가 연결되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넣는 태영.

붕어의 전화를 받으며, 오피스텔로 향한다. (붕어의 미행장면 교차)

태영            Hits?  
붕어            네, 이 사람 회 한사라 소주 시켜 먹고는 노래주점 가서 도우미들  
                      한테 계속 걸떡이다가 술 끝아서 모텔로 갔어요. 이 양반 진짜로  
                      호구핑계대고 휴가 즐기러 내려온 거 같은데요?  
태영            아니야. 노래주점에 간 것도 뭔가 공공이가 있어서 그런거야.  
                      씨발. 니가 따라 붙은 걸 눈치챘나?  
붕어            그런 김샌 전혀 없었는데요.  
태영            능구렁이 같은 새끼야. 절대 방심해선 안 돼.

전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태영.

## 79.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D

통화 이어진다.



붕어(E) 전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은 뒤 따라 붙지 못해요.  
 태영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붕어(E)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태영 엘리베이터인데. 내가 내려서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는 태영.

태영 (혼잣말로)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 80. 오피스텔, 복도-태영의 집. N

엘리베이터엔 내린 태영이 다시 붕어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한숨을 내쉬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태영.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당황한다.

태영 !!!

현관에 있는 여자구두.

태영이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하면... 주방엔 앞치마를 두른 긴 머리 여자가 냄비를 휘젓고 있다.

태영 누.. 누구...?  
 (소리) (다정하게) 이제야 왔네~ 태영씨 좋아하는 복어찜 만들었어.

뒤돌아보고 씨익- 웃는 긴 머리 여자.  
 숏컷, 최연희다!

태영 너....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는 태영.  
 연희는 다시 뒤돌아서 요리를 하면서... 태연하게...

연희 아유,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내가 청소하고, 빨래도 돌렸어.  
 역시 태영씨 내가 있어야 돼.

연희가 말하는 사이, 식탁에 있는 칼을 본 태영.  
 칼을 집더니 연희에게 다가간다.  
 그러고는 연희를 푹푹- 찌르면서...

태영 (연희를 칼로 썰며) 니 년이 나한테 한 짓을 기억 못하고  
 날 찾아 온 거야?

칼에 찔리며 신음소리를 내는 연희.  
그런데, 신음소리가 점점 묘하게 바뀌더니, 화면이 바뀌면...  
태영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연희의 등을 마사지 하고 있다.

열심히 연희를 주무르는 태영.  
머리를 흔들고 자신을 자책해 보지만, 연희의 요구대로 몸은 움직일 뿐이다.

연희            난 자기 마사지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자기 해경 짓  
                  그만두고 나랑 외국 나가서 마사지 샅 차릴까?  
태영            ...

연희의 허벅다리를 마사지 할 때 찜, 태영은 연희의 잉어 문신을 쳐다본다.

태영            경찰은 네가 죽었다고 생각해.  
연희            왜 그러지? 난 이렇게 썩썩하게 살아있는데...  
태영            이 잉어 문신 때문에... 얼마 전에 토막 난 시체가 발견 되었는데,  
                  시체 다리에 이거랑 똑같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거든.  
연희            역시 째새는 한심해. 이거랑 똑같은 문신 한 애가 얼마나 많은데...

마사지를 받던 연희, 벌떡 몸을 세우더니...

연희            그나저나, 이 집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태영            무슨 인테리어? 난 좋기만 하구만.  
연희            이 벽지랑, 바닥 일어난 거 봐. 식탁도 좀 올드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빌려줘.  
태영            뭘?  
연희            카드 말이야. 인터넷으로 살 거니깐 필요하잖아.  
태영            네 건 어찌구?  
연희            태영씨 집 꾸미는데, 내 돈으로 사라고?  
태영            내 카드 정지 먹었어.  
연희            거짓말. 공무원이잖아!  
태영            진짜야. 현금 서비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네가 갑자기 잠수 타는  
                  바람에 나 혼자 박사장에게 진 빚 다 뒤집어썼잖아.  
연희            또 그 이야기야?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다고.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는 연희.

태영            그러니깐 그 사정을 말해보라고!!  
연희            ... 중국인들이랑 손잡고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개네들이 죽인  
                  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달아난 거야.

태영           어째서 나한테 말 안했어?  
 연희           못한 거야. 하게 되면 태영씨한테까지 피해 갈까봐.  
 태영           ... 근데 왜 나한테 다시 온 거야.  
 연희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  
 태영           ...  
 연희           내가 이제 불편한가보네. 태영씨가 나가라면 나갈게.  
 태영           ...

태영이 대답이 없자, 방구석에 놓아둔 명품 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연희.

태영           어... 어디 가려구?  
 연희           내가 알아서해.

태영, 이대로 연희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현관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그녀의 허리를 꼭 껴안는다.

태영           가지마...

연희,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이다.

## 81. 태영의 집. 방. N

연희의 가발은 벗겨져 있고... 침대에 누워 있는 태영과 연희...  
 연희가 태영의 가슴을 더듬더듬 거리며,

연희           나 생각해봤는데, 좀 잠잠해 질 때까지 상해에 사는 이모네 갈까해.  
                 상해은행에 돈 좀 맡겨둔 게 있거든. 그 쪽에 도착하면 돈 좀 마련  
                 해볼게.  
 태영           이모한테 돈을 붙여 달라면 되잖아.  
 연희           금고 명의가 내 걸로 돼 있어서 내가 직접 가야해.  
 태영           그래? 그럼 빨리 가면 되잖아.  
 연희           여보세요. 중국 놈들이 어떤 놈들 인줄 알아?! 내 출국기록 남으면,  
                 거기까지 따라 오는 놈들이라고. 제발 생각 좀 하고 얘기 해.  
 태영           (발끈) 그럼 네 생각은 뭔데?  
 연희           다른 이름으로 여권 받을까 해..  
 태영           (어이없어하며) 여보세요. 여권이 무슨 커피숍 포인트 카드야?  
 연희           이름 빌려줄 사람 찾아올 테니깐... 자기가 수속 밟을 때 도와줘.  
 태영           연희야. 세상엔 법이란 게 있어. 걸리면 징계로 안 끝나. 누구 콩밥  
                 먹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연희           그럼 명의 빌릴 사람에 대해서 조사만 좀 해줘? 나가는데 문제가 될

태영                   만한 게 있는지... 해경이니까 그 정돈 간단히 알 수 있잖아?  
 연희                   과결 조사하라고? 너, 설마 여권 핑계로 신분 바꿔치기 하려는 거야?  
 태영                   아냐. 명의만 빌리려는 것 뿐야. 명의 빌렸는데 문제 있을 수 있잖아.  
 태영                   그게 그거잖아. 안 돼.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말려들지 않을 거야.

정적...

연희                   좋아 그럼, 자기 직장에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짓들 모두 밝혀도  
                           될까?  
 태영                   너...

눈빛이 매섭게 변하는 연희.

연희                   자기한테 선택권이 없어. 내일 오전에 당장 날 상해로 갈 수 있게 해  
                           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권을 보여주며) 이 이름으로 나갈 때,  
                           문제되지만 않게 해주면 돼.

연희가 보여준 여권에는 미란의 이름에 연희의 사진이 붙어있다.

태영                   서미란이 누구야? (섬뜩) 너... 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이 때, 집 안을 울리는 덩동- 소리.

연희                   울 사람 있어?  
 태영                   아니 없는데.... (현관문을 향해) 누구세요?  
 소리(E)               나야. 유명구.

인상을 팍- 구기는 태영.

연희                   유명구? 유명구가 누군데?  
 태영                   (한숨) 있어. 서울에서 온 째새.  
 연희                   (놀라며) 째새? 째새가 왜?  
 태영                   그럴 일이 있어. 넌 그냥 쥐죽은 듯 조용히 있으면 돼.  
 연희                   ...

## 82. 태영의 집, 현관 앞. N

현관문을 열면, 살짝 취한 명구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태영에게 맥주 캔이 들은 비닐봉지를 드민다.

명구            같이 마실까 싶어서 좀 사왔어. 해경청에 갔더니 일찍 퇴근했다고 하잖아.  
태영            아... 일이 좀 있어서요... 근데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명구            뭐, 그런 거 알아내는 게 어렵나....

씨익- 미소 짓는 명구.

태영은 이젠 명구의 미소가 소름끼친다.

태영            근데 어찌죠? 제가 다시 나가봐야 해서...  
명구            아 그래...? 이런... 미리 연락을 할 께 그랬네... 뭐 어쩔 수 없지.  
태영            죄송해요.  
명구            아냐 아냐. (그러다 문득 생각난 척) 아 자네 내가 좀 알아봤더니...  
                  자네 노래주점 여사장 땀에 자금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던데...  
                  여사장은 지금 행방불명이고...  
태영            (당황) 네?! 그게 무슨...?  
명구            아가씨들한테 자네 사진 보여주니깐... 자네 그쪽 바닥에선 연예인  
                  이더만...  
태영            ... 뭔가 착각들을 한 거 같은데...

Insert) 그 때, 집 안에서 연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다가 실수로 물건 하나를 떨어뜨린다.

명구가 집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더니,

명구            나 잠깐 화장실 좀 쓰면 안 될까? 맥주 좀 마시고 왔더니, 계속 마렵네.

태영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태영을 슬쩍- 밀치고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명구.

## 83. 태영의 집. 거실. N

명구, 식탁에 앉아 있는 연희와 마주한다.

연희            (생글 웃으며) 안녕하세요~  
명구            ... 뭐야. 여자네?

태영,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다...

Cut to;

거실에 술상이 차려져 있고... 연희는 과일을 깎고 있다.  
명구는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자랑질 중이다.

명구            그래서 그 때, 그 최석호를 혼자 뛰어가서 잡은 거라니깐요.  
연희            (순진한 얼굴로) 와~ 진짜 멋지네요. 혼자서 탈주범을 쫓아 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명구            뭐, 그런 거 무서워하면 형사하면 안 돼죠.  
연희            진짜 멋져요. 누구랑 참 다르다. (태영에게) 자긴 벌레도 무서워  
                  하잖아.  
태영            응? 무슨 소리야...  
명구            뭐, 해경이랑 형사랑은 다른 거니깐. (연희에게 맥주잔을 건네며)  
                  자~ 짬!  
연희            짬!!

명구에게 잘 맞춰 주는 연희.  
반면, 태영은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다.

명구            그나저나 이 친구 나한텐 애인 없다고 하더니.  
연희            그래요? (태영을 흘기며) 뭐야? 진짜 그랬어? 서운하네.  
명구            그러게. 왜 그랬데? (웃으면서) 혹시 이분이 그 행방불명된 여사장  
                  님은 아니시지?

순간, 정적...

연희            (능청맞게) 여사장님? 그게 누구야? 태영씨?  
태영            (당황) 응? 아냐.  
명구            아쿠. 내가 착각 했나보네요. 그러게 왜 애인없다고 해서. 근데  
                  뭐, 나 같아도 이런 미인이 애인이면 감춰 뒀을거야. 으흐흐.

연희에게 은근히 깔떡이는 명구.  
태영을 화제를 돌리고자,

태영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명구            뭐 특별히... (문득) 아 맞다, 오늘 낮에 동기 좀 만나러 평택서를  
                  좀 들렸는데... 얼마전 평택호 부근에서 나온 토막시체건 땀에  
                  정신 없더만.

태영, 순간 긴장한다.

연희            (놀라며) 토막시체요? 어머 끔찍해라.  
명구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피해자 신분을 알 수 없게 얼굴과 손은

빠고 담았는데, 신분을 밝힐만한 중요한 단서는 하나 남겨놔더라구.  
(허벅다리를 만지며) 이 허벅다리 바깥 부분에 잉어문신이 새겨져 있었어.

웬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명구가 태영을 보더니,

명구            왜? 뭐 아는 거 있어?  
태영            네?  
명구            표정이 뭔가 아는 것 같아서...  
태영            아... 아니예요.  
연희            (싱글 웃으며) 자, 끔찍한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술 마세요.

맥주 캔을 명구에게 애교 있게 건네는 연희.

연희            형사님, 또 재밌는 얘기 없어요?

명구가 연희의 애교에 씨익-웃으며 맥주 캔을 부딪치며,

명구            있지있지.

이 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 명구에게 걸려온 전화.  
명구,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명구            잠시만. 서울이네.

명구가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태영            (목소리를 낮추며) 너... 정말로 신분세탁하려고 사람 죽인거야?  
연희            장난해? 이런 문신은 이쪽 애들 사이에선 흔해 빠졌다고.  
태영            (목소리를 낮추며) 그럼, 저 형사한테 니 다리에 똑같은 문신이  
                 있다고 얘기해도 돼?  
연희            그럼, 태영씨도 무사할 것 같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태영            너....

연희의 섬뜩함에 소름이 끼치는 태영.  
그 때, 통화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명구...

명구            나...참..  
태영            왜 그러세요?  
명구            오동팔이 붙잡혔데.

태영 (깜짝 놀라며) 네?  
 명구 군산항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밀항선을 타려고 시도하다가 거기서 붙잡혔다네...  
 태영 군산요?  
 명구 (실망섞인) 응. 설마 했는데 군산으로 내뺐더라구. 참 내. 말이 씨가 됐구만.  
 태영 ... 그럼 지금 서울로 가보셔야 하는 거예요?  
 명구 뭐, 내일 아침까지 가면 돼. (한숨) 서울에 뭐 하나 들고 가긴 해야 하는데... 매번 빈손이라... (자리에 앉으며) 모르겠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지 뭐.

자리에 앉아 맥주를 들이키려는 명구.  
 하지만, 맥주가 비었다.

명구 (자리에서 일어서며) 맥주 좀 더 사와야겠네...  
 태영 아. 앉으세요. 제가 사올게요.  
 명구 (바로 다시 앉으며) 아... 그래? 그럼 땡큐지.

자리에서 일어난 태영을 노려보는 연희.  
 태영은 연희의 시선을 피하고 자리를 뜬다.

## 84. 편의점, 노래주점(교차). N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면서 붕어에게 전화를 거는 태영.  
 노래주점 룸에서 전화를 받는 붕어. (교차)

태영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 화 알 안 받아?!  
 붕어 옆에 박사장님이 있었단 말예요.  
 태영 아, 그래? 지금은?  
 붕어 지금은 혼자예요.  
 태영 ... 호구가 붙잡혔대. 군산에서  
 붕어 (놀라며) 호구가 붙잡혔다고요?  
 태영 응. 너 말이 맞았어. 날 미끼로 던지고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려 했던거야. 개자식.  
 붕어 거봐요. 원래 현금 들고 다니는 놈들은 믿어선 안 된다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호구도 잡힌 마당에... 박사장님한테 돈 갚기로 한 날이 내일이잖아요.  
 태영 (한숨)  
 붕어 아, 그리고, 짬새들이 오전에 가게에 왔었어요.  
 태영 뭐? 왜?



붕어            최연희가 잉어문신한 거 알아챈 거 같아요.

태영            그래? 그래서 뭐라 했어?

붕어            뭐, 최연희 그년이 워낙 사기친 게 많아서 쫓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태영            내 애긴 나왔어?

붕어            아뇨. 최연희 중국 애들한테 쫓기고 있었다고. 그쪽으로 넘겼어요.

                  짬새들도 그쪽으로 방향 잡은 것 같고요.

태영            잘했어... (잠시 생각하고는) 일단 너만 알고 있어. 연희. 지금 우리 집에 있어.

붕어            (화들짝 놀라며) 네? 최연희가 경정님 집에 있다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태영            궁금한 건 나중에 풀고... 연희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저번처럼 박두만한테 일러바쳤다간....

붕어            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니까요.

태영            이 여우년이 외국으로 뜨려는 거 보면, 뭔가 쥐고 있는 게 분명해. 절대 빈손으로 시작할 애가 아니거든. 문제는 지금 능구렁이가 우리 집에 있는데...

붕어            (놀라며) 네? 서울 짬새도 집에 있다구요?

태영            응.

붕어            오늘 집들이 하세요?

태영            시끄러. 구렁이 내보내면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깐, 여기 와서 여우 한 마리 족치는 거 좀 도와줘.

붕어            경정님. 무슨 제가 심부름센터입니까? 심부름센터도....

태영            연희가 가진 돈의 삼분의 일.

붕어            오대오.

태영            됐어. 그럼, 빠져.

붕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태영            알았어. 내가 들어가서 상황보고 문자 보낼게.

전화를 끊는 태영.

노래주점 룸에서 붕어가 전화를 끊으면, 그 옆에서 박두만과 메기가 통화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

박두만            허허. 집들이 하는데 우릴 안 부르고 섭하네.

## 85. 태영의 오피스텔 안. N

집안으로 들어가는 태영.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화들짝 놀라, 손에 든 봉지를 떨어뜨린다.

!!!

연희가 목에 과도가 꽃힌 명구의 시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고 있다.

연희 (태연하게) 뭐해? 보고만 있지 말고, 와서 좀 도와줘.  
 태영 무.... 무슨 짓을 한거야?  
 연희 (시체를 끌며) 이 돼지새끼가 내가 여사장이란 거 눈치 채고 있었어. 태영씨 나가자마자 내 문신을 보려고 하더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현관문 앞에서 너무 놀라서 손을 떠는 태영.

태영 신... 신고 할 거야...  
 연희 신고? 제발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고 했지. 여기 태영씨 집이야. 요 몇일 태영씨 이 사람한테 쪼이고 있었고... 태영씨 말을 경찰이 믿어줄까? 하여튼 순진해.  
 태영 너....  
 연희 자, 서둘러. 내일 아침까진 시간 있어. 시체 처리하고 내일 해 뜨는 대로, 상해로 떠나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도 나랑 같이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

어안이 빙벙한 태영의 표정.

연희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시체를 발로 툭툭 치며) 이 것 좀 화장실로 같이 옮겨줘.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희를 도와 명구의 시체를 화장실로 옮기는 태영.  
 손에 피가 잔뜩 묻는다. 괴로운 표정이 가득하다.

Cut to;

연희가 화장실에서 피를 닦고 있는 사이.  
 연희의 백을 쳐다보는 태영.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한다.

Cut to;

화장실에서 나오는 연희.  
 그 순간, 태영이 후라이팬으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가격한다.  
 쓰러지는 연희...  
 태영이 쓰러진 연희를 흔들어보는데, 연희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다.

Cut to;

연희의 명품백을 뒤지는 태영.

백에는 돈이 얼마 들어있지 않은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 밖에 들어있지 않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태영.

그러다 혹시나 해서 가방 속 지퍼를 열어보는데... 뭔가 들어있다.

벤츠 자동차 키...

## 86. 오피스텔, 주차장. N

주차장으로 내려온 태영.

키 버튼을 누르면서 확인하면, 삐빅- 소리내며 반응하는 벤츠 차...

**태영** 나쁜 년. 날 그렇게 엿먹여놓고 지는 이런 차나 타고 다니고.

서둘러서 차 안을 확인하는 태영.

트렁크를 열자, 골프용 명품 보스턴백이 들어있다.

보스턴백을 열어보는 태영, 그 안에는 5만원권이 다발로 가득 들어있다.

**태영** (씨익 웃으며) 오호, 역시. 잉어야 니가 날 살리는 구나

벤츠에 타서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태영.

그리고, 끝이어...

주차장 안으로 두식과 메기, 붕어 등이 탄 차량이 들어온다.

## 87. 오피스텔, 거실. N

바닥에 쓰러진 연희를 흔드는 누군가.

연희, 서서히 정신이 깨어나고, 눈을 뜨면.... 붕어의 얼굴이 보인다.

**붕어** 깨어났는데요.

연희, 정신을 차려서 주변을 살피면... 조직원 몇 명이 보이고...메기도 보인다.

그리고, 명구의 경찰증을 확인하는 박두만도 눈에 들어온다.

박두만, 연희가 깨어나자 연희에게 다가오더니...

**박두만** (히죽 웃으며) 오랜 만이요. 최사장. 아니 이렇게 매번 사람을 놀래 키쇼. 허허. (붕어에게) 야, 언능 집주인한테 연락혀라. 집들이 왔는데, 집 주인이 없으면 예의가 아니잖여?

붕어                    네. 사장님.  
박두만                (메기에게) 어째... 질경질경 좀 해야쓰겠는디.

박두만의 지시에 메기가 사시미 칼을 꺼내며 연희에게 다가가면...

연희                    (기겁하며) 자.. 잠시만...

## 88. 호텔, 주차장-오피스텔, 거실(교차). N

평택 호텔 주차장에 차를 대는 태영.

이 때, 진동소리가 울리고...발신자 확인하면 붕어다...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결국, 받는 태영.

태영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며) 여보세요.  
붕어                    경정님 어떻게 되었어요? (명구의 시체를 보며) 아직 구렁이가 안  
간 거예요?  
태영                    (목소리를 낮추며) 응... 구렁이 저 인간 끝을 모르네. 여튼 내가  
연락 다시 할 테니깐 대기하고 있어봐.

태영, 전화를 끊고는 차에서 내려 벤츠 트렁크 문을 열고 보스턴백을 꺼낸다.  
(오프닝에서 보스턴백을 들고 가는 장면과 동일하다)

Cut to;

전화를 끊은 붕어.

붕어                    개새끼.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박두만에게) 사장님. 이 새끼 째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온 건 모르는 것 같아요.  
박두만                첫 배 뜨면 뜨려고 할 거야. 평택항 주변으로 싹 뒤져봐!  
붕어                    네.

## 89. 호텔, 사우나 실내로비. N

보스턴백을 들고 호텔 사우나 실내로비로 들어오는 태영.  
카운터에는 중만이 앉아 있다.

중만                    어서 오세요.  
태영                    안에 흡연실 있죠?

중만                    네... 저 화장실 옆쪽에 있어요.

사우나 안쪽으로 들어오는 태영.

락커에 보스턴백을 힘겹게 끼어 넣고, 주머니에서 ‘럭키스트라이크’ 담배를 꺼낸다.

그런데... 한 대 밖에 없는 담배. 게다가 하필 부러져있다.

중만에게 다가가는 태영.

태영                    혹시 여기 담배 팔아요?

중만                    담배는 안 파는데요.

태영                    저 혹시 담배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중만                    (황당해 하며) 네?

태영, 지갑에서 만 원짜리 두 장을 꺼내어 중만에게 건넨다.

태영                    부탁 좀 드려요.

중만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저 혼자 밖에 없어서요.

태영                    제가 봐 줄 테니깐, 다녀와요.

중만                    ... 죄송합니다. 규칙상 자릴 비울 수가 없어서요.

태영                    (물러나며) 에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투덜거리며 사우나를 나가는 태영....

중만                    ...

## 90. 편의점 밖 거리. N

편의점에서 럭키스트라이크 담배를 사서 나오는 태영. 담배를 입에 문다.

불을 붙이려는 찰나, 건너편 거리에 있는 박두만 조직원과 눈이 마주친다.

조직원들... 태영을 발견하고 서서히 다가간다. 담배를 내던지고 달아나는 태영.

태영                    에이, 씨발.

조직원1                야이 새끼야 거기 서!!

태영을 쫓는 조직원들.

## 91. 거리. N

전속력으로 뛰는 태영을 쫓는 조직원들.

추격전이 벌어진다.

## 92. 골목. N

으스스한 골목에 몸을 숨기는 태영.

조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스스 나타난 메기!

태영	헉!
메기	질경질경 해줄게.
태영	야.. 돈 줄게... 줄 테니깐... 일단 멈춰봐.
메기	질경질경!
태영	너... 이씨... 그 말 밖에 할 줄 몰라..?

허리춤에서 횃칼을 꺼내는 메기.

태영	야... 왜 이래? 줄게. 진짜 돈 준다고.
----	--------------------------

서서히 태영에게 다가가는 메기.

두려움이 가득 찬 태영, 뒷걸음 질 치다가 다른 쪽 골목 방향으로 달아난다.

그 때, 끼익~~!! 퍽!! 소리가 들리고,

붕고에 치여 바닥에 널 부러지는 태영.

그의 몸에서 피가 퍼져 나와 그의 몸을 적신다. 마치 꿈 장면처럼...

숨을 헐떡이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태영.

메기는 자기가 죽이지 못해 아쉬워하는 얼굴이다.

이 때, 붕고에서 내리는 붕어와 박두만 조직원들.

붕어	에이씨.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랬잖아.
----	-------------------------

붕어는 죽어 있는 태영의 손에 들린 '럭키 스트라이크'를 본다.

붕어	(혼잣말로) 에휴~ 그렇게 열심히 믿더만. 내가 그랬죠? 큰 돈 들고 다니는 새끼 어떤 것도 믿어선 안 된다고.
----	--

눈을 뜬 채 죽어있는 태영...

붕어	빨리 실어.
----	--------

붕어의 지시에 태영의 시체를 차에 싣는 조직원들.

붕어, 럭키스트라이크를 꺼내 물고는 불을 붙인다.

### 93. 병원 밖, 벤치. D

돈 봉투를 딸 지연에게 건네는 중만.

지연                    이게 뭐야?

돈 봉투 안을 들여다보는 지연. 두둑하다.

지연                    (놀래며) 설마 빌린거야?

중만                    아니야.

지연                    그럼 이런 돈이 어디 있었어?

중만                    모아둔 돈이 좀 있다고 했잖아. 가게 정리할 때 남은 것도 좀 있었고. 병원비도 다 계산했으니깐. 걱정말구.

중만을 지그시 바라보는 지연.

지연                    (미소를 지으며) 아빠. 정말 고마워. 잘 쓸게.

중만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연습 게을리 하지 말고.

지영                    (애교를 부리며) 응. 알았어. 아빠.

중만, 듻직한 아빠의 모습이다.

### 94. 어느 아파트, 현관 앞-엘리베이터. D

땡동-! 초인종을 누르는 중만.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면, 고모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서있다.

고모                    다신 안볼 것 같이 굴더니, 이번엔 또 뭔데?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는 중만, 고모에게 건넨다.

중만                    확인해봐. 백십만원이야. 이자 십프로 쳐서 십 더 넣었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고모.

고모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중만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으니깐 관심꺼.

그렇게 말하고, 기세등등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만. 기분이 좋다.

## 95.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앞. D

중만이 아파트에서 나와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전거를 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를 보면, 지배인이다.

망설이던 중만, 침을 한번 삼키고는 전화를 받는다.

지배인(E)            최종만씨?

중만                    왜 그러죠?

지배인(E)            지금 혹시 시간 되세요?

중만                    무슨 일인데요?

지배인(E)            전화로 얘기하긴 좀.

중만                    아직도 날 도둑놈 취급하는 거예요?

지배인(E)            그런 얘기가 아녜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두 시간 뒤, 여기  
일층 커피숍 어때요?

중만                    ...

## 96. 호텔, 로비 커피숍. D

로비 커피숍 창가 쪽 원탁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중만.

여종업원의 '어서오세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입구를 쳐다보면,

지배인이 한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온다.

연희와 두만이다!!!

지배인                    (연희에게) 이쪽이 최종만씨입니다. 그리고 이 쪽은 경찰에서  
나오신 분들.

박두만이 위조된 '경찰증(명구)'을 중만에게 보여준다.

지배인은 중만 옆에, 연희와 박두만은 마주보는 자리에 앉는다.

연희                    저흰 지금 한 남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중만                    ...

연희                    얼마 전 이 근처에서 이 남자를 봤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연희가 중만에게 사진을 보여주면, 태영의 사진이다.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중만.

지배인 (나서며) 근무표를 보니깐, 최중만씨가 칠월 삼십일 새벽타임에 근무했더라고요.

연희 이 사람 본 적 없나요?

중만 기억이 잘... 손님들이 워낙 들락날락 하는데라...

연희 아마 그 날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녔을 겁니다.

연희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카탈로그에서 오린 '골프용 명품 보스턴 백 사진'이다.

중만이 들고 간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

지배인 이 가방, 최중만씨가 들고 간 가방이랑 같은 거 아녜요?

중만 (당황) 그러네요... 제 가방이랑 같은 거네요.

지배인 (연희에게) 저희 알바생한테 확인해보니깐, 이 가방을 옷장에 두고 간 손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희 아, 그런가요?

중만 (눈을 찡그리며) 언제 이야깁니까?

지배인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중만 저도 기억이 잘..

지배인 알바생 말로는 최중만씨가 그 가방을 보관실에 놔 두겠다 했었던데... 근데, 분실물 기록장에는 그런 게 적혀 있지 않던데요.

중만 그 친구가 뭔가를 착각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배인 확실하게 봤대요.

긴장했는지, 테이블 밑에서 손을 꼬지락 거리는 중만.

중만 저... 이런 이야긴 좀 그렇지만... 어쩌면 그 알바생일지도 몰라요.

지배인 뭐라고요?

중만 지난번에 음료수량이 잘 안 맞는다 했잖아요. 그거 사실, 그 친구가 몰래 빼 마신거예요. 그리고 보면, 돈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손버릇이 좋지 않아서... 저도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지배인 (말을 자르며) 최중만씨! 딱 잘라 말할게요. 요전 날 댁이 가져간 가방, 그게 이 가방 아녜요? 그날 분실고에서 똑같은 가방 들고 나왔었잖아요.

지배인과 중만의 눈치를 보는 연희와 두만.

중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건 제겁니다.

지배인 분명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형사님을 모셔온 거거든.

(연희를 향해) 당장 이 사람 집에 한 번 가보세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

연희가 나선다.

연희                    실례가 안 된다면 가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중만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

중만                    ... 이 건, 제 생일에 딸이 선물한 겁니다.

연희                    그런가요? 골프를 치시나 봐요?

중만                    네?

연희                    이거 골프 가방이거든요.

중만                    ...

연희                    뭐, 일반용으로 쓰긴 하지만...

중만을 보고 미소를 짓는 연희.

중만                    ...

연희, 박두만을 한 번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희                    좋아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마음이 그러네요.

(사진을 챙기며) 바쁘실텐데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만                    .. 끝... 끝난 건가요?

연희                    네.

지배인                아.. 아니.. 이렇게... 끝난 건가요?

연희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지배인                ...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피숍을 빠져나가는 연희와 박두만.

어이없어하는 지배인.

중만 역시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얼굴이다.

## 97. 거리-차 안, D.

해안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힘껏 달리는 중만. 바람이 몹시 분다.

한편... 중만의 뒤를 어느 차량이 뒤따르고 있다.

메기가 운전하고 있고, 뒷좌석에는 두만과 연희가 앉아 있다.

두만, 연희의 허벅지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며,

두만           최사장은 배우 허도 성공했을 거요. 어쩐 그렇게 연길 잘혀?  
허허.

연희           ...

## 98. 중만의 집, 안방-주방. D

집에 들어오자마자, 황급히 옷장에 있는 보스턴백을 꺼내는 중만. 얼굴은 땀 범벅이다.  
낡은 의자에 앉아 TV를 보던 순자가 중만을 쳐다본다.

그 때, 땡땡- 집 안을 울리는 초인종 소리.

중만, 헐레벌떡 방 안에서 나오더니,

중만           (인터폰을 누르며) 누....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에 연희와 두만이 보인다.

연희(E)       최중만씨. 아까 인사했던 경찰입니다.  
순자           경찰이 왜 우리 집에 왔냐?

중만은 안방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안절부절 못한다.

순자           에휴, 나이 먹고도 저리 안절부절 못해서야. 저러니 잘되는 일이  
있겠냐?

중만, 결국 보스턴백을 안방에 내던지고 대문을 열러간다.

순자           (혀를 차며) 쫓쫓.

## 99. 중만의 집, 현관문 앞. D

현관문을 열면, 연희와 박두만이 서있다.

연희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중만           아... 아까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연희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딸이 선물해 주셨다는 가방.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중만           아.. 그게.

연희 (미소) 보여주지 못할 사정이라도...?  
 중만 그런 건 아닌데....  
 연희 시간 많이 뺏지 않을게요. 확인만 하면 바로 돌아 갈 거예요.  
 중만 실은 아까 깜박하고 말 안했는데, 가방을 딸아이한테 빌려줘서...  
 연희 (버럭) 최종만씨!!!

흠칫 놀라는 중만.

연희 영장 받아서 여기 모조리 수색할 수도 있어요. 협력해 주시는 게 서로가 좋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는 중만. 이내 포기한 듯...

중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지고 올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중만.

하지만, 연희와 두만은 기다리지 않고 중만을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

## 100. 중만의 집, 주방. D

거실에 있던 순자는 연희와 두만을 멍뚱멍뚱 쳐다본다.

## 101. 중만의 집, 안방. D

연희가 안방 문을 열면, 중만이 보스턴백에서 돈을 빼서 숨기려다가 딱 들킨다.

Cut to;

바닥에 헝클어진 돈다발을 세고 있는 연희.

연희 (두만에게) 맞네요. (중만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도둑질 하신 거예요.  
 중만 (조아리며) 죄... 죄송합니다.  
 박두만 (연희에게) 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가지.

두만의 지시에 돈다발을 보스턴백에 넣는 연희.

그녀의 시선에 중만의 회칼세트가 들어온다.

그 때, 방안으로 들어오는 순자.

중만               !! 어머니는 나가 주세요.

순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중만.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중만을 옆으로 밀어낸다.

순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분명 그년이 우릴 죽이고 우리  
재산 뺏으려고 할 거라고.

박두만과 연희는 순자가 무슨 애길 하는지 어리둥절한 눈치다.

중만               (한숨) 하아~ 어머니. 그런 거 아니예요.  
순자               이 등신아.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왔겠어?!  
중만               어머니. 형사님들이예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돈을 드려야 해요.  
순자               형사? 요즘 형사는 향수냄새 폴폴 풍기며 손톱에 매니큐어하고  
다니냐?

순간, 적막이 흐르는 방 안.

박두만과 연희는 당황하는 눈치다.

중만               (연희에게) 죄...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연희               괜... 괜찮아요.

연희, 돈을 보스턴백에 모두 집어넣고는 방을 나오려고 한다.

순자               그냥은 못 보내!

순자가 연희의 머리카락을 붙잡는다.

연희               이 할망구가 미쳤나!

연희, 역시 순자의 머리칼을 잡는다.

연희               봐~ 이 할망구야!!  
순자               못 봐~

서로 놓지 않고 버티는 상황.

이 상황이 당혹스러운 중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박두만           거 조용히 가려했더만, 귀찮게 됐구먼.  
중만               이게 무슨...?

퍽! 방 안에 있는 다리미로 중만의 머리를 가격하는 두만.  
중만,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 때, 순자를 밀쳐내는 연희.  
순자는 장롱 문짝에 부딪혀서 일어나지 못한다.

**박두만**            **아따. 거... 일이 거시기 해졌구먼...**

박두만은 보스턴백을 챙기고는, 메기에게 전화를 걸려고 한다.  
그 순간, 푸욱!! 칼에 찔리는 박두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연희가 중만의 회칼세트에 든 회칼로 박두만을 찔렀다!

**박두만**            **이 미친년이...**  
**연희**                **이 돈은 내 꺼야.**

두만이 연희를 밀쳐내면, 연희가 회칼세트에 든 다른 회칼로 박두만을 또 다시 찌른다.

**박두만**            **이~~개 같은....**

배에 박힌 칼을 뽑으려고 하는 두만.  
하지만, 연희가 또 다른 회칼로 박두만의 급소를 또 다시 찌른다.  
**푸욱-** 마침내 쓰러지는 박두만.  
피 범벅이 된 바닥.

## 102. 중만의 집, 주방. D

연희가 보스턴백을 들고 방안을 나오더니, 가스 밸브를 자르고 가스렌지 불을 올린다.  
집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 103. 중만의 집, 마당. D

뒷문으로 집을 빠져 나오는 연희

## 104. 중만의 집 앞 거리, 두만의 차안. D

화면 가득, 보이는 길고양이... 이빨을 드러낸다.  
메기가 중만의 집 앞에서 길고양이를 쳐다보다가 중만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본

다.

메기                    !!

## 105. 거리, 택시 안. D

택시 뒷좌석에 가방을 싣고 급히 타는 연희.

연희                    아저씨. 평택항으로 빨리 가주세요

출발하는 택시, 연희가 손에 묻은 피를 본다.

## 106. 중만의 집, 안방. D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중만.

중만                    쿵럭! 쿵럭!

중만, 주변을 살펴 보고는, 쓰러진 순자를 발견한다.

순자를 업고는 연기를 헤치고 서둘러 빠져나오는 중만.

그 와 반대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메기.

메기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칼 꽂혀 죽어있는 두만을 발견한다.

## 107. 중만의 집 앞. N

정신 차린 순자가 불타오르는 집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중만 역시 불타오르는 집을 보고 망연자실한다.

오열하는 중만.

중만                    으아아아~~~

이 때, 순자가 중만에게 다가와서는, 중만의 머리를 털어주며 태연하게...

순자                    다 큰 남자가 우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엔 전국이  
다 이 꼴이었어. 살아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거야.

두 팔과 두 다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중만                                ...

그 때, 집 밖으로 나오는 메기.  
두만을 찌른 회칼 하나를 들고 중만에게 다가온다.

중만                                !!!  
메기                                질경질경...  
중만                                내... 내가 그런 게 아네요. 그 형사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중만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하는 메기.  
눈을 질끈 감은 중만. 그 순간 짹- 소리가 들린다.  
순자가 메기의 뺨을 휘갈겼다.

순자                                어디 귀한 칼을! 그거 못 내려놔!  
메기                                ...

메기가 순자를 노려보다가 그녀를 찌르려는데, 그 순간 불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하는 메기. 두만의 차에 올라타 서둘러 어딘가로 향한다.

## 108. 평택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N

평택항 여객 터미널 전경.  
보스턴백을 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연희.

## 109. 평택항 여객터미널, 락커 앞. N

연희가 터미널 락커에 보스턴백을 구겨 넣고는 열쇠를 빼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 110. 평택항 여객 터미널, 화장실. N

핏자국이 묻은 손을 씻는 연희.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에 나타난 한 남자!!  
메기다!

연희                                (당황) 어... 어이. 내... 내 애길 들어봐.  
메기                                질경질경 해줄게.



화장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 칼을 든 메기를 보고 겁먹고는 화장실을 빠져 나간다.

연희            돈 줄게... 돈.  
메기            질경질경.  
연희            뭐라는 거야.

기회를 봐서 달아나려고 하는 연희.

하지만, 달아날 곳은 없다.

변기 칸으로 급히 들어가는 연희, 문을 잠그려 하는데... 쾅! 문을 건어차는 메기.

변기 의자에 앉아있는 연희에게 서서히 다가가며,

메기            질경질경  
연희            이런.. 개씨발.

푸욱- 회칼로 연희를 찌르는 메기.

푸욱- 푸욱- 그리고, 질경질경 소리...

잠시 후, 터미널에 배치된 보안요원들이 화장실로 나타난다.

메기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보안요원들.

카메라는 변기에 앉은 채, 고개를 떨어뜨린 연희의 모습을 길게 비춘다.

## 111. 중만의 집 앞. N

중만은 잣더미가 된 집 안을 살펴보고 있다.

그 때, 잣더미에서 번쩍 거리는 물건을 발견한다.

아버지의 횃칼이다.

한참을 들여다보는 중만.

횃칼을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는다...

## 112. 평택항 화장실. N

청소중이라는 표지판이 화장실 입구에 놓여있고,

물걸레로 연희가 죽은 자리에 묻어있는 핏물을 닦는 장면이 보여 진다.

화장실 바닥을 물청소하는 50대 청소부 여자.

자세히 얼굴을 보면, 중만의 아내 영선이다.

청소하다가, 변기 칸 뒤에 떨어진 락커열쇠를 발견하는 영선.

### 113. 평택항 여객터미널 락커 앞. N

락커열쇠로 락커를 열어보는 영선.

그 안에 보스턴백을 발견하고는 꺼낸다.

영선                   (혼잣말로) 뭐가 이렇게 무겁데...

그리고, 지퍼를 슬쩍 열어보는데...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다.

영선                   !!!

영선, 이 걸 어째야 하는 얼굴이다.

### 114 . 어느 곳.

오프닝과 같은 애잔한 음악이 흐르고,

어딘가로 향하는 보스턴백이 보여 진다.

카메라는 보스턴백만을 비추며 따라간다.

끝.